금수강산



4
1994



금수강산

월 간

1994년 4 호(루계 제56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차 례

표지 1면 **김일성**화
사진 김광진

표지 4면 축포가 오르는 평양의 밤
사진 리히철

주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4537



수필

새날이 밝는 시각에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우리《금수강산》잡지 편집부앞으로 편지를 보내오고있는 가운데 얼마전 나에게도 한장의 편지가 날아왔다.

반가움을 자아내는 낯익은 주소와 이름…

조국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리동포가 보내온 편지였다.

가정소식이며 동포들과 더불어 더욱 분발하여 애국운동에 헌신하고있는 사연들이 편지에 적혀있었다.

글줄마다에서 동포의 잔잔한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는듯 싶은데 그는 조국의 새날이 밝는 시각에 맞추어 이 편지를 쓰며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하였다.

잊을수 없는 추억을 불러오는 구절이였다.

내가 리동포를 처음 알게 된것은 조국을 방문한 동포들이 있는 숙소를 찾았던 날이였다.

여러 동포들은 조국체류의 나날도 거의 끝나간다고 하며 그동안 조국땅에서 보고 듣고 느낀 소감들을 터놓았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행복에 넘친 어린이들을 한품에 그러안고 볼을 비비던 감격도, 모란봉의 을밀대에 올라 웅장화려한 평양의 전경을 부감하고 거리거리를 거닐어보던 환희도 이야기하였다. 국제친선전람관에서 세계 5대륙 벗들의 마음을 알고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의 위용에서 조국의 숨결을 가슴벅차도록 느꼈다는 긍지와 자부의 목소리도 있었다.

평양의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는 인민대학습당이야기도 나왔다.

그때 한 동포가 인민대학습당이야기라면 자기도 한마디 하고싶다고 했다.

조국에 도착하여 한밤 자고난 다음날 이른새벽, 동포는 남먼저 깨여났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청신한 공기를 한껏 들이키던 그는 조국의 첫 새벽에 발목이 시도록 산책하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숙소를 나섰다.

아직 거리는 조용했다.

그는 생소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큰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 가느라니 웅장한 건물의 자태가 한눈에 안겨왔다.

그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비행장에서 숙소로 오던 때에 자기들을 제일 처음 반가이 맞아준 안내원이 달리는 뻐스의 차창밖을 가리키며 인민대학습당이라고 알려주면서 이곳에서 시간마다 종도 울린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기러기떼가 날아오르는듯한 합각지붕을 떠인 인민대학습당을 황홀하게 바라보고있던 그의 눈길은 문득 이 건축물의 큰시계에 가 멎었다.

시계바늘은 정각 다섯시를 가리키고있었다.

다섯시로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이였다.

갑자기 종소리가 울려퍼졌다. 온 넋을 사로잡는 장중한 종소리였다.

동포는 이름 못할 환희에 휩싸였다.

그때 또다시 종소리가 울려퍼지였다.

그 음향의 메아리와 메아리를 신비스럽게만 듣고 섰던 동포는 온 정신을 모았다.

분명 종소리는 하나의 선률로 이어지고있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선률이 새벽대기를 가르며 우주의 온 공간에 울려퍼지는듯 싶었다.

장－백－산－줄－기－줄－기－

동포는 저도모르게 선률에 자기의 목메인 목소리를 맞추었다.

그렇게 하기를 몇번…

잠시후 종소리가 여운을 남기며 사라진것도 깨닫지 못한듯 동포는 한자세로 서있었다.

마치 움직이면 온 넋으로 간직한 가장 소중한것을 놓치기라도 할듯…

어느덧 추억이 갈마들었다. 어릴적 아버지에게서《**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처음 배우던 일이 선히 떠올랐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아버지는 노래의 구절구절을 미처 다 리해못하는 어린 아들에게 자주 **김일성**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옛말처럼 들려주었다.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과 피맺힌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장군님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광복의 길에 나서시였다.

눈보라 수만리길을 헤치시고 사생결단의 어려운 고비를 수백수천번 넘으신 그이이시다.

조선의 의로운 아들딸들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장군님을 따라 목숨바쳐 싸웠다.

조국광복을 이룩하신 장군님께서는 우리 조국땅에 누구나 다 골고루 잘사는 인민의 세상을 펼쳐주시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처럼 빛나는 자욱자욱을 새겨오신 위대한 분의 노래이기에 우리 겨레는 이세상 그 어디에서 살건 민족의 얼이 넘치는 이 노래를 그리도 당당히 높이 부를수 있는거다. 너도 잘 새기여라.》

성장의 나날속에 아버지가 심어준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은 신념으로 새겨졌다.

그는 이역의 애국충정의 대오에서 울리는《**김일성**장군의 노래》에 심장의 목소리를 합치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그런 세월이 세번이나 바뀌여도 어린시절에 새긴 노래는 변함없이 그의 심장에서 울려나왔다.

그러던중 이번 조국방문길에서 잊을수 없는 시각을 맞이한것이였다.

동포는 격정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 이세상 좋은 표현을 다 골라도〈이민위천〉의 위대한 사상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희세의 위인에 대한 칭송을 다할수 없을것입니다.

이 만민의 마음이 어린 뜻깊고도 장중한 종소리와 더불어 새날이 시작되고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기에 사회주의조국은 그토록 강하고 조국에 마음을 두고사는 이역동포들도 더욱 억세여지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새날이 밝는 시각에 새긴 종소리를 우리 가정과 우리 생활의 가장 성스러운 좌표로 삼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길에 힘껏 이바지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리동포는 이런 사람이였다.

편지를 읽고난 나는 가슴이 후더웠다.

나는 그가 애국성업의 걸음걸음 자랑찬 성과를 거두리라는것을 믿어마지 않았다.

본사기자 려 정

단상

동포와 함께 만경대에서

취재길에서 만나는 해외동포들을 촬영할 때마다 나의 마음은 후더워지군한다.

그것은 아마 사진기 샷타를 누르기에 앞서 그들의 절절한 마음부터 알게 되기때문이리라.

4월의 봄을 맞으며 얼마전 동포들과 함께 만경대고향집을 찾았을 때에도 역시 나는 그런 심경이였다.

그날 사람들의 꽃물결속에 묻혀 고향집사립문으로 들어서서 사적물들을 돌아보는 동포들의 얼굴마다에는 숭엄한 빛이 어려있었다.

그들은 사립문밖에 나서서도 그 앞을 떠날줄 모르고 기념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때였다. 나이지숙한 한 녀성동포가 자기의 사진기를 나의 손에 넘겨주며《좀 찍어주세요. 특별부탁입니다》라고 하고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우며 옷매무시를 바로잡는것이였다.

나는 화창한 봄날의 꽃속에 싸인 수수하면서도 추녀 낮은 집을 배경으로 동포의 모습을 사진찍었다.

여러번 찍고서야 만족해하는 동포에게 나는 여기에 처음 와보는가고 물었다.

《아니요. 벌써 세번째랍니다.》

동포의 어조는 자랑스럽게 울리였다.

《아, 그런가요?》하며 머리를 끄덕이는 나에게 동포는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쉬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올수록 더 오고싶구요.》

이런 말은 지난해 고향집앞에서 만났던 동포들도 했었다.

사는 대륙도 다르고 만난 때도 다르건만 그들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는 하나같았다.

나의 생각을 깨치며 동포가 말을 이었다.

《조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의 심정을 다는 모를것입니다.

이역에 살수록 조국의 모든것이 그리운데 민족의 태양을 떠받들어올린 고향집으로 달리는 마음이야 이를데 있겠습니까.

초가지붕, 낮은 추녀, 쇠스랑이며 가대기, 베틀, 찌그러진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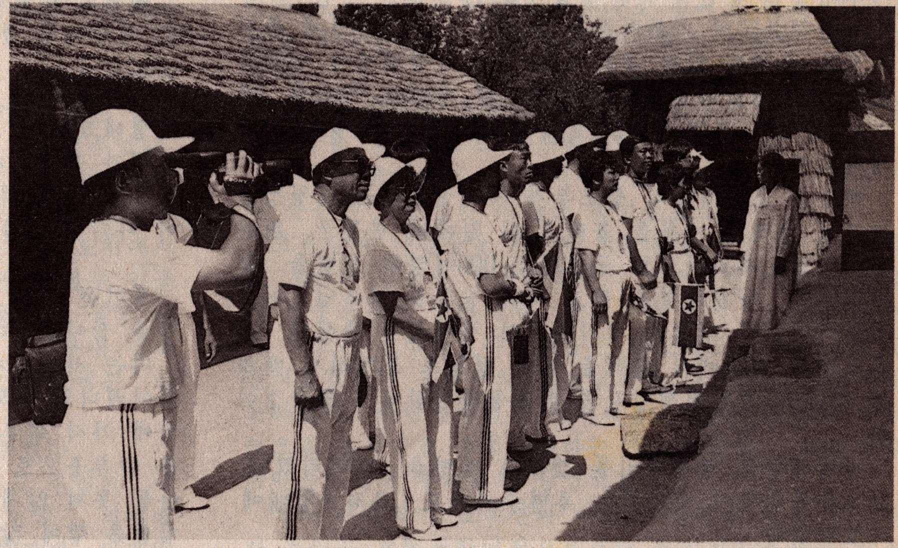
암담하던 그 세월 그처럼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어버이수령님의 온 일가분들이 대대로 애국의 혈통을 이어 조국과 겨레를 위하여 싸워오시였다는것을 생각할 때 머리수그러집니다.》

이렇게 말하며 동포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없이 흘러드는 고향집에 한동안 감동어린 눈길을 보내였다.

《사무친 그리움을 안고 이렇게 달려와서 사진을 찍느라면 고향집과 더욱 굳게 이어지는 우리의 가슴에 애국의 피가 끓어오르고 마음의 고향집이 높이 솟은 조국을 변함없이 억세게 받들어갈 일념이 불타오릅니다.》

그날 나는 바로 이런 마음을 안은 이역동포들에게 나의 사진기의 초점을 맞추었다.

글 및 사진 김광진



만경대를 찾은 해외동포들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3) 중에서

마촌작전



…

내가 앓고있는 한달사이에 적들은 동기《토벌》준비를 완료하였다. 일본내각에서 파견된 고위관리들이 간도땅에 기여들어 군대, 헌병, 경찰, 외사 부문의 수뇌들과 함께 동만유격근거지들에 대한 동기《토벌》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도꾜에서는 이 문제가 내각회의에서까지 론의되였다.

…

1933년 여름에 일본군부는 항일유격대의 공격에 만신창이 된 간도림시파견대의 일부를 조선으로 소환해가고 그대신 히도미부대를 비롯한 수많은 관동군의 정예부대들을 동만각지에 투입하였다.

조선강점군의 기본력량은 유격구 《토벌》작전에 즉시적으로 응할수 있는 우리 나라 북부국경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였다. 도합 만수천명에 달하는 막대한 병력이 간도의 유격구들을 포위하고 동기《토벌》행진을 개시하였다.

적들은 조선혁명의 참모부가 자리잡고있는 소왕청유격구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 이 일대에 관동군, 위만군, 경찰, 자위단으로 구성된 5,000여명의 무력을 들이밀었다. 방진대렬을 짓고 적과 승부를 겨루던 마누팍뚜라시기의 전쟁을 제외한다면 산병선이 출현한 이후부터의 전쟁에서 병력을 이런 정도로 조밀하게 배치한 실례는 로일전쟁당시의 려순공방전밖에 없을것이다.

비행대들도 출동준비를 갖추고 명령을 기다리였다. 간도특무기관이 주관하는 특별수사반도 유격구일대에 파견되였다.

그리하여 동만의 모든 지역은 우리와 일본제국주의와의 가장 격렬한 혈전장으로 되였다. 몇개 지역의 유격구를 보위하는 방위전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대결전이였다.

그런데 소왕청에는 2개 중대의 유격대력량밖에 없었다. 게다가 유격구에는 식량의 예비가 얼마 없었다.

동만의 유격근거지들은 그 존망을 가늠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여있었다. 대포와 비행기로 무장한 강적을 2개 중대의 력량으로 격파할수 있다고 믿는 락천가는 유격구에 단 한명도 없었다. 우리앞에는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우다가 죽느냐, 아니면 유격구를 포기하고 적에게 굴복하느냐 하는 두갈래의 길이 놓여있었다.

우리는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흰기를 들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유격전술상의 원칙을 놓고 보면 이런 대결전은 사실 하지 않는것이 상책이였다. 그런데 대결전을 하지 않으면 적들이 일격에 두만강연안의 모든 유격구들을 삼켜버릴수 있었다. 우리가 유격구를 지켜내지 못하면 인민혁명정부의 혜택속에서 참다운 평등과 자유를 누리던 혁명군중이 엄동설한에 굶어죽고 얼어죽고 총에 맞아죽을수 있었다. 유격구를 잃는다면 인민이 다시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을것이였다.

…

나는 묘술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궁리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내 주변에는 전술문제를 론의할만한 인물들이 하나도 없었다. …

홍범도와 같은 명장이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

어려운 때를 당하고보니 선렬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절절해졌다.

내가 전술문제를 두고 련일 지휘부귀틀집에서 모대기고있을 때 하루는 리치백로인이 꿀단지를 들고 자정이 다되여 나를 찾아왔다.

…

로인은 집에 가서 밤참이나 같이 들자고 하면서 내 팔을 잡아끌었다.

나는 사양하지 않고 로인을 따라나섰다. 밤참도 밤참이려니와 나와 반성위의 체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집에 가서 하루밤 자고싶은 생각도 간절하였다. 숙소를 다른곳으로 옮기였지만 나의 정은 의연히 나를 친아들 못지 않게 따뜻이 돌보아주던 그 수더분하고 인심좋은 집에 많은 몫을 남겨두고있었다.

우리는 밤참으로 당콩을 넣은 강낭죽과 호박을 먹었다. 방금 열병을 앓고난 뒤여서 그런지 음식맛이 꿀처럼 달았다. …

나는 밤참을 먹은후 반성위가 묵어간 그 방에서 리치백로인과 함께 가지런히 잠자리에 들었다.

로인은 웬일인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내처 한숨을 쉬였다. …

《아버님, 왜 장밤 한숨만 쉬고계십니까?》

나는 이불자락을 걷어젖히고 로인쪽을 향해 모로 돌아누웠다.

《잠이 안와서 그러네. 적들이 유격구문밖에까지 와서 수천명이 진을 치고있다는데 어디 배포유하게 잠을 잘수 있어야지. 이번 〈토벌〉에 유격대가 거덜난다는 말이 도는데 대장생각은 어떤가?》

《유격대가 망한다는건 반동들이 내돌리는 요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떨하게 잡도리를 하면 유격구가 이틀이나 사흘안팎으로 거덜이날수도 있습니다. 유격구의 운명이 사실은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유격구가 거덜난다는건 말이 안돼. 유격구가 없이야 무슨 재미로 살겠나. 차라리 죽어서 까마귀밥이 되든가 북망산귀신이 되는게 낫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이 근거지를 베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적은 수천명이나 되는데 소왕청을 지키는 우리 군대는 적의 100분의 1이나 되나마나하니…》

로인은 담배를 몇모금 빨고나서 내앞으로 바싹 베개를 밀어놓으며 근엄하게 말했다.

《병졸이 부족하면 나두 대장의 부하가 되겠네. 우리 소왕청에 나처럼 불질을 할줄 아는 늙은이들이 한둘이 아닐세. 총만 한자루씩 쥐여주면 강화진위대 찜쪄먹게 싸울수 있네. 전에 우리가 살던 중경리 근처에 독립군들이 파묻고 간 총과 철알이 있을것 같은데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포수나 독립군출신 령감들은 말할것도 없구 청년사업이요 뭐요 하면서 왔다갔다하는 우리 사위중권이 같은 패들두 무장시킬수 있지 않겠나. 모두가 싸움군이 돼서 너죽고 나죽고 해볼판이지. 총이 없으면 하다못해 놈들의 멱다시를 잡구 배지개를 뜨면서라도 근거지를 지켜내야 할게 아닌가.》

로인의 이 말은 적아의 력량대비에서 오는 차이때문에 고민을 겪고있던 나에게 전민항전만이 닥쳐온 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유일한 출로라는것을 시사해주었다. 격전의 제1선에 유격대와 함께 배치하려고 이미부터 내정하였던 자위대나 소년선봉대와 같은 반군사조직들뿐아니라 비무장인원들까지 전부 동원하여 도처에서 결사전을 벌린다면 싸움에서 능히 주도권을 쥘수 있을것이라는 자신심이 생기였다. 소왕청방위전은 적군 대 항일유격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적군 대 유격구내 전체 군민과의 싸움으로 되여야 하였다. 우리의 편에는 반유격구인민들도 계산해 넣을수 있었다.

리치백로인과의 담화는 나에게 힘을 주었다.

(그렇다. 인민이 싸운다면 싸우는것이고 인민이 이긴다면 이기는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인민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인민을 얼마나 잘 동원시키는가에 달려있다.)

…

우리는 적의 력량이 분산되여있을 때에는 힘을 합쳐 습격소멸하고 적이 력량을 집결하여 쳐들어올 때에는 분산하여 도처에서 적의 후방을 교란한다는 종래의 전술적원칙을 다시금 확정하고 소왕청관내 전체 주민들에게 전민항전을 호소하였다.

유격구인민들은 그 호소를 받들고 조직별, 계층별로 격전준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자위대와 청년의용군은 유격대와 함께 방어진지를 차지하였고 총이 없는 청장년들은 방어전연의 경사가 급한 고지들에 돌무지를 쌓아놓았다. 장포수, 최포수, 리포수를 위시한 왕청의 명포수들이 마촌에 달려와 독립군출신 령감들과 함께 포수대를 뭇고 전방으로 출동하였다. 작식대와 담가대에 망라된 녀인들도 화선으로 달려갈 차비를 하였다. 아이들은 널판자에 못을 박아 적군용자동차들이 지나갈 도로들에 파묻었다. 로약자들과 어린이들은 대피지로 소개되였다.

우리는 그때 싸우다가 죽으면 죽었지 왕청을 버리고 달아난 북로군정서 독립군들의 전철은 밟지 않을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격전준비를 빈틈없이 하였다.

…

적들은 1933년 11월 17일에 보병, 포병, 항공대의 협동작전으로 3개 방향에서 소왕청유격구를 포위공격해왔다. 성난 이리떼처럼 눈에 살기가 잔뜩 어린 《야마도》의 후예들은 생나무라도 물어뜯을 험악한 기세로 유격구에 달려들었다. 그 오만하고 도도한 기세란 실로 왕청땅을 열다섯번쯤 탕치고도 남을만한것이였다.

대《토벌》은 엄혹한 동기조건에서 파상식으로 지독스럽게 감행되였다. 적의 비행대들은 군정지도기관들이 자리잡고있던 마촌과 리수구를 연거퍼 폭격하였다. 전술도 이만저만 악착스러워지지 않았다. 적들은 유격구로 쳐들어왔다가도 공격이 좌절되면 그날로 되돌아가는 종전의 피스톤식《토벌》로부터 공격이 실패해도 물러가지 않고 도달한 계선에 그대로 주저앉아 숙영하면서 한걸음한걸음 전진하여 차지한 지대를 공고히 해가는 《보보점령》의 전술로 이행하였다. 이것은 점령지역안의 모든 생명체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일체 부동산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불사르는 지독한 전술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군대와 인민은 일심동체가 되여 유격근거지를 영웅적으로 사수하였다.

적아의 공방전이 가장 치렬하게 벌어진곳은 유격구의 관문인 뾰족산과 마반산 쑥밭골초소였다.

뾰족산과 마반산을 지키던 3중대와 반일자위대는 적을 20메터 안팎의 근거리에까지 접근시킨 다음 불의적인 집중사격과 작탄세례, 돌세례를 안겨 달려드는족족 모조리 소멸하였다. 적들은 파도식으로 악착스럽게 달려들었으나 유격구의 전초진지를 한걸음도 넘어서지 못하였다. 마반산계선의 방위자들은 높은 속도의 기동력으로 유격구를 우회공격하는 적기병들을 대왕청하굽인돌이에서 통쾌하게 섬멸하였다.

적의 대병력이 뾰족산과 마반산 진지에 련속 투입되자 우리는 전면적방어전으로부터 유인기만전술을 위주로 하는 신축자재한 기동과 적극적인 방어활동에 의한 소모전에로 이행하였다. 이것은 여러가지 전투형식으로 적의 병력을 끊임없이 소멸하고 주동에 서서 교전상대를 싸움에 부단히 끌어들임으로써 적에게 일분일초의 안정도 허용하지 않는 특이하고 자유분방한 전법이였다. 만일 우리가 이런 전투형식을 제때에 택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방어전술에만 매여달렸더라면 유격대는 수적우세와 전투기술기재의 우세를 믿고 거마리처럼 악착스럽게 달라붙는 적의 공격앞에서 지리멸렬되였을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새로운 전술적조치에 따라 유격대원들은 반군사조직성원들과 함께 전초진지들에서 철수하여 유격구의 종심깊이로 적을 끊임없이 유인하면서 매복전, 저격전, 숙영지습격전, 불무지작탄전 등의 천변만화한 전법으로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통쾌하게 때리였다.

…

…우리의 련속적인 기습에 겁을 먹은 적들속에서는 전쟁정신병자까지 발생하였다.

어떤 적병들은 유격대원들이 뿌린 《일본병사들에게 격함!》, 《위만군병사들에게 격함!》과 같은 선전문을 보고 우리측으로 투항해오기도 하였다.

…

전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치렬해졌다. 일본군의 포화에 재더미가 된 소왕청을 뒤에 두고 주민들은 십리평으로 피난하였다.

적들은 군사인원과 비군사인원, 어른들과 아이들, 남자들과 녀자들을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족족 다 죽이였다. 동기《토벌》은 소왕청에서 수백명의 희생을 내였다.

…

적들은 만신창이 되여 허덕이면서도 검질기게 늘어붙어 장기전을 기도하였다. 인원도 무기도 식량도 공급받을데가 없는 우리를 장기전의 함정에 빠뜨려 얼어죽고 굶어죽게 하려는것이였다.

전국의 결정적인 전환만이 유격대와 유격구인민들을 구원할수 있었다. 유격구방위전과 함께 적들의 종심에서 강력한 교란작전을 벌리는것만이 유격구와 인민들을 보위하는 유일한 출로였다.

…

그러나 동만당과 현당에 앉아있던 대부분의 간부들은 적들이 집결해서 쳐들어올 때에는 무턱대고 우리가 집결해서 적을 방어해야 유격구도 지켜내고 인민들도 보호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유격근거지가 초토화되고 희생자와 전사자들이 속출하자 나는 동장영, 리상묵, 송일을 비롯한 특위와 현의 간부들을 만나 적후교란전을 벌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

동만의 다른 유격구들도 그무렵에는 소왕청과 비슷한 고전을 겪고있었다. 훈춘사람들은 밀려서 금창과 화소포 쪽으로 갔고 왕우구사람들은 다홍왜와 삼도만방면으로, 화룡현사람들은 처창즈방면으로 각각 이동하기 시작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간부들은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였다.

그래서 나는 적구교란론을 재차 상정시키고 《군대는 내가 책임졌으니 내 결심대로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런 다음 유격대원들을 모여놓고 말했다.

《우리는 방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의 뒤통수도 쳐야 한다. 누가 적구로 가겠는가? 갈 사람은 나를 따라서라.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절반만 적구로 나가고 절반은 유격구에 남아 인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적구로 나갈 사람들은 나와 같이 오늘밤중으로 포위망을 뚫자. 포위망만 뚫으면 살길이 열린다. 적의 거점들과 지탱점들을 련이어 들부시면 소문이 난다. 소문이 나면서 여기에서도 치고 저기에서도 치면 후방이 녹아날가봐 산골안에 들어왔던 〈토벌대〉들이 다 달아난다.》

이렇게 되여 유격대는 두패로 갈라졌다. 한패는 최춘국의 지휘하에 십리평을 지키고 다른 한패는 내가 데리고 적구로 나갔다. …

나는 그날 저녁으로 유격대의 한개 편대를 데리고 배밀이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적후방으로 깊이 들어갔다. 우리가 예견했던대로 적후방은 오히려 텅 비여있었다. 우리가 도시주변의 첫 부락에 들렸을 때 그 마을사람들은 설준비를 하느라고 한창 음식을 만들고있었다. 그들은 유격근거지에서 일제의 《토벌》에 다 죽은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고 하면서 교즈와 기장떡과 같은 설음식으로 우리를 푸짐히 대접하였다. …

우리는 다음날부터 적들을 답새기기 시작했다. 전술은 자그마한 《토벌》거점들에 대한 습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비교적 큰 《토벌》거점들에 대한 공격을 배합하는것이였다.

맨 처음으로 친것이 량수천자의 적이였다. 우리의 벼락같은 기습에 위만군과 자위단이 녹아나고 일본령사관 경찰병영이 완전히 점령되였다. 량수천자에서 적후교란전의 첫 총성을 울린 우리는 멀리로 사라지는척하다가 제자리에 돌아앉아 신남구라는곳에서 이동하는 적자동차수송대를 습격소탕하고 많은 밀가루와 군수물자를 로획하였다.

우리는 신남구에서 멀리 떨어진 북봉오동의 산악지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쭉 빠져나가 새 전투를 준비하였다. 1934년 2월 16일밤 북봉오동의 위만군과 경찰, 자위단원들은 모두 우리 부대에 의해 살상포로되였다.

북봉오동에서 승리의 개가를 올리고 북고려령을 넘어 사동방향에 진출한 우리 부대는 동골에 있는 산림경찰대를 공격하여 병영의 적들을 모조리 사살하거나 생포하였다.

적의 동기《토벌》을 분쇄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최후의 싸움은 도문—목단강사이의 철길을 끼고있는 주요군사요충지 대두천에서 벌어졌다. 적《토벌대》로 변장한 우리는 100여리의 험산준령을 강행군으로 단숨에 돌파한 다음 3개의 조로 나누어 대두천의 경찰서와 자위단실을 습격하고 군수창고에 불을 질렀다.

이 전투가 있은 다음부터 적들은 유격구를 조이고있던 포위망을 해제하고 90일전의 출발지점으로 퇴각하였다. 적들은 《암》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연 석달동안 유격구의 존립을 위협하던 동기《토벌》의 운명은 서산락일로 끝나고말았다.

편이상 마촌작전이라고 불렀던 소왕청근거지방위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그것은 아돌프 히틀러의 취임과 라이프찌히공판, 쏘미외교관계수립으로 소란스럽던 세계의 일각에서 소문없이 생겨난 하나의 기적이였다. 소왕청유격구방위자들의 영웅적위훈과 고난으로 얼룩진 그들의 행적을 방불하게 그려낼수 없는것이 유감스럽다.

수령님과 려운형의 자녀들

몽양 려운형은 해방직후의 혼란된 정세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유일한 령도자로, 민족대단합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참된 애국의 길에서 목숨을 바친 통일의 선각자, 열렬한 애국지사이다.

려운형이 희생된 때로부터 반세기 가까운 세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가 남기고 간 후대들에게 베푸신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현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전설로 민족사의 갈피에 아로새겨져있다.

아래에 그 일단을 소개하려고 한다.

보금자리를 찾아

1946년 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원천리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남조선인민당 당수 려운형을 만나주시였다.

오래전부터 항일의 전설적영웅으로 흠모하여마지 않던 **김일성**장군님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진로를 받아안은 려운형의 감격은 이루 말할수 없이 컸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진정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지니신 장군님이시야말로 그가 60평생 애타게 그려온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이시였다.

일생의 더없이 행복한 그 순간에 려운형은 문득 자식들 생각을 하였다. 봉구, 홍구, 웅구, 란구…

아홉남매 모두에게 창공을 날으는 새의 이름자를 달아주었건만 모진 세월탓에 우로 아들 셋은 깃도 펴보지 못한채 땅속에 묻히고말았다. 해방은 되였지만 외세에 의한 강토의 분단이 현실화되여가는 복잡한 정세의 와중속에서 민족의 전도와 함께 자식들의 장래때문에 걱정도 많았던 그였다. 그러나 이제는 자식들에게 깃들 보금자리와 나래를 펼 창공이 있었다.

바야흐로 황혼기를 맞이하는 인생행로에서 그처럼 젊으신 민족의 령도자를 만난것은 그야말로 천행중의 천행이였다.

려운형은 서울로 떠나던 날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두 딸을 장군님의 슬하에서 키우고싶다고, 그애들을 보내겠으니 공부를 시켜달라고 청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깊은 심중을 헤아리시고 그애들을 자신께로 보내라고, 자신께서 댁에 함께 데리고있으면서 공부를 시켜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집으로 돌아온 려운형은 그후 어느날 깊은밤에 리화녀대에 다니는 둘째딸 연구와 셋째딸 원구를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하였다.

《미군정장관이란 사람은 너희들을 미국에 류학보내라고 독촉이 성화같지만 나는 너희들을 **김일성**장군님께 맡기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아버지는 **김일성**장군님이시다.》

당시 스무살, 열아홉살이던 연구와 원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평양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자 그이께서는 몹시 반가우시여 잘왔다고, 어서 가까이 오라고 하시며 넓은 품에 안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는 한집안식구가 되였는데 어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필요한것은 다 제기하라고, 서울에서 잘 싸우고있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공부를 잘하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때부터 연구와 원구는 나날이 두터워지는 육친의 정을 몸가까이 느끼며 수령님댁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였다.

인생의 보금자리를 찾아온것은 그들자매뿐이 아니였다.

려운형이 피살된후 남조선의 근로인민당에서 활동하던 맏딸 란구와 서울에서 공부하던 넷째아들 영구가 평양으로 왔으며 전쟁시기에는 부인과 막내아들 붕구, 막내딸 순구 역시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을 거쳐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던 영구는 전쟁이 일어나자 자진하여 인민군대에 입대하였으며 서울방어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그는 아버지처럼 떳떳하게 생을 마친 려운형 자녀들중의 첫 사람이였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운 자리에서 려연구는 이렇게 말씀올렸다.

《우리 아홉남매중에서 위대한 수령님품에 안긴 형제들만이 참되게 살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길 때만이 참되게 살고 그품속에서만 영생할수 있다는것이 려운형과 그의 자녀들이 찾은 삶의 진리였다.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

려운형의 가족이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온 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흘러갔다.

그동안 려운형의 부인과 맏딸 란구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연구, 원구, 붕구, 순구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과 지방들에서 일하고있었다.

어느덧 그들의 나이도 오십고개에 이르렀다. 일찌기 부모를 잃은 이들 네남매의 정은 각별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친부모나 형제의 정에는 대비도 할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오랜 세월 자신들을 포근히 감싸주고있다는것을 다는 모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려운형의 자녀들이 잘있는가를 알아보시였으며 그가 우리에게 맡기고 간 아들딸들인데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당부하군하시였다. 또 어느날에는 그렇게도 여러번 이야기했는데도 그애들이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나무람하시면서 어느때든지 좋으니 네남매가 함께 놀러오라고 말씀도 하시였다.

1978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려운형을 회상하시면서 이번 설은 그의 자녀들

과 함께 쇠겠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려연구의 네남매는 1979년 설날아침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큰절을 올리고는 얼굴을 싸쥐고 흐느끼고 말았다.

수십년 세월 친부모보다 더 살뜰하게 돌봐주시고도 또 이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곁에까지 불러주시는 그 은정,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아름찬 그 사랑에 목이 메여 그들은 울고 또 울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급히 그들께로 다가오시여 갈리신 음성으로 그들을 달래주시였다.

그들이 진정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업과 생활 형편을 일일이 물어주시고나서 나이가 들도록 찾아오지 않았다고 나무람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행복에 겨워 어쩔줄 몰라하는 그들을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년사를 마치시고 다시 려연구남매들을 만나주시였다.

려연구남매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부디 만수무강하시라고 절절히 말씀올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할것을 심장으로 맹세다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려연구남매들을 평양에서 모여 살도록 해주시고 그들에게 국가의 책임적인 직무를 맡겨주시였으며 명절과 기념일때면 자신의 곁에 부르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가족들에게는 대를 두고 전할 선물도 안겨주시였다.

1991년 11월 16일 려연구의 네남매는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동무네 4남매를 친자식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동무들은 아무때나 나를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붕구가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아버지가 인민당 당수를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활동하였는데 그 아들도 통일을 위한 직접부문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서기국장으로 일하도록 하라고 크나큰 신임을 베풀어주시였다.

그후 려붕구가 뜻밖의 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치르고 시신을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현재 려연구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의장으로, 려원구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려순구는 경공업위원회 부총국장으로 사업하고있다. 수십명에 달하는 그들의 자손들도 다 려운형의 뜻대로 애국의 길을 떳떳이 걸어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믿음, 이는 천만인생을 싹틔우고 꽃피우는 자양분이며 삶의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다.

영생의 은인

1991년 11월 25일 서울시 우이동에 있는 려운형의 분묘앞에서는 한 녀인이 오열을 터뜨리며 아버지를 목놓아 부르고있었다. 그가 바로 《아세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울에 간 우리측 녀성대표단 단장 려연구였다.

아버지가 반동테로에 쓰러졌던 때조차 올수 없었던 딸이 그리도 무정하게 부녀사이를 갈라놓은 분단선을 44년만에야 비로소 넘어 부친의 령전에 찾아갔던것이다.

《아버지! 어서 눈을 들어 이 꽃을 보아주십시오. 어서 일어나시여 이 화환을 받아주세요.

변함없으신 믿음의 그 뜻이, 머나먼 저 우주의 별도 끌어당기는 그 위대한 사랑이 사시절 따로 없는 영생의 봄을 꽃피워주시는데 왜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으십니까!…》

분묘앞에는 그가 가지고간 화환이 놓여있었다.

싱싱한 생화들로 엮어진 화환에 드리운 붉은 댕기에는 《**고 몽양 려운형선생을 추모하여 김일성**》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꿈에서조차 해빛을 그리던 몽양의 넋이 저 서리찬 분단의 장벽을 밀어내며 뜨겁게 비쳐든 사랑의 빛발을 받아 저렇듯 아름다운 꽃으로 피여난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앞에서 묘소에 모인 사람들은 격정을 금치 못했다. 싸늘한 적의의 시선들조차도 눈부시게 비쳐드는 태양빛에 고개를 떨구어버리고말았다.

아흐레전인 11월 16일 려연구네 네남매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려연구남매를 볼 때마다 려운형선생 생각이 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0여년전의 일들을 회고하시였다.

그러시다가 려연구에게 며칠후에 서울에서 열리는 《아세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에 가면 아버지의 묘소를 꼭 찾아가보아야 한다고, 아버지의 림종도 보지 못한 딸이 성묘를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는가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내가 몽양 려운형선생의 묘에 나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려고 합니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지금 그가 생존해있으면 105살이 된다고 하시면서 깊은 의미를 담아 화환을 잘 만들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화환을 가지고 갈 때와 증정할 때 주의할점들까지도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아버지가 원쑤들의 흉탄에 쓰러진지도 어언 40여년, 이제는 자식들의 기억속에서조차 희미해져가는 그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못다주신 사랑을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신 수령님, 아버지가 생전에 품었던 뜻을 그토록 값높이 일러주시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시는 그이의 숭고한 인간애와 의리에 목메이며 네남매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웨쳤다.

(아버지! 아버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바다보다 넓고 태양열보다 따사로운 어버이수령님의 그 품속에 그리고 그이께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우리 자식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조국통일과 민족대단합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사람들을 다 애국지사로 높이 평가해주시고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크나큰 은정과 영광을 베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다.

온 겨레를 얼싸안는 그이의 위대한 광폭정치, 인덕정치의 빛발아래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그날은 휘황히 밝아오고있다.

본사기자 박용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려운형선생의 자녀들을 만나주시였다 (1991.11.16)

려운형의 자녀들을 찾아서

1





려운형선생과 그의 가족들(1941년)

2



귀여운 손녀의 피아노반주에 맞추어
(려운형선생의 셋째딸 려원구(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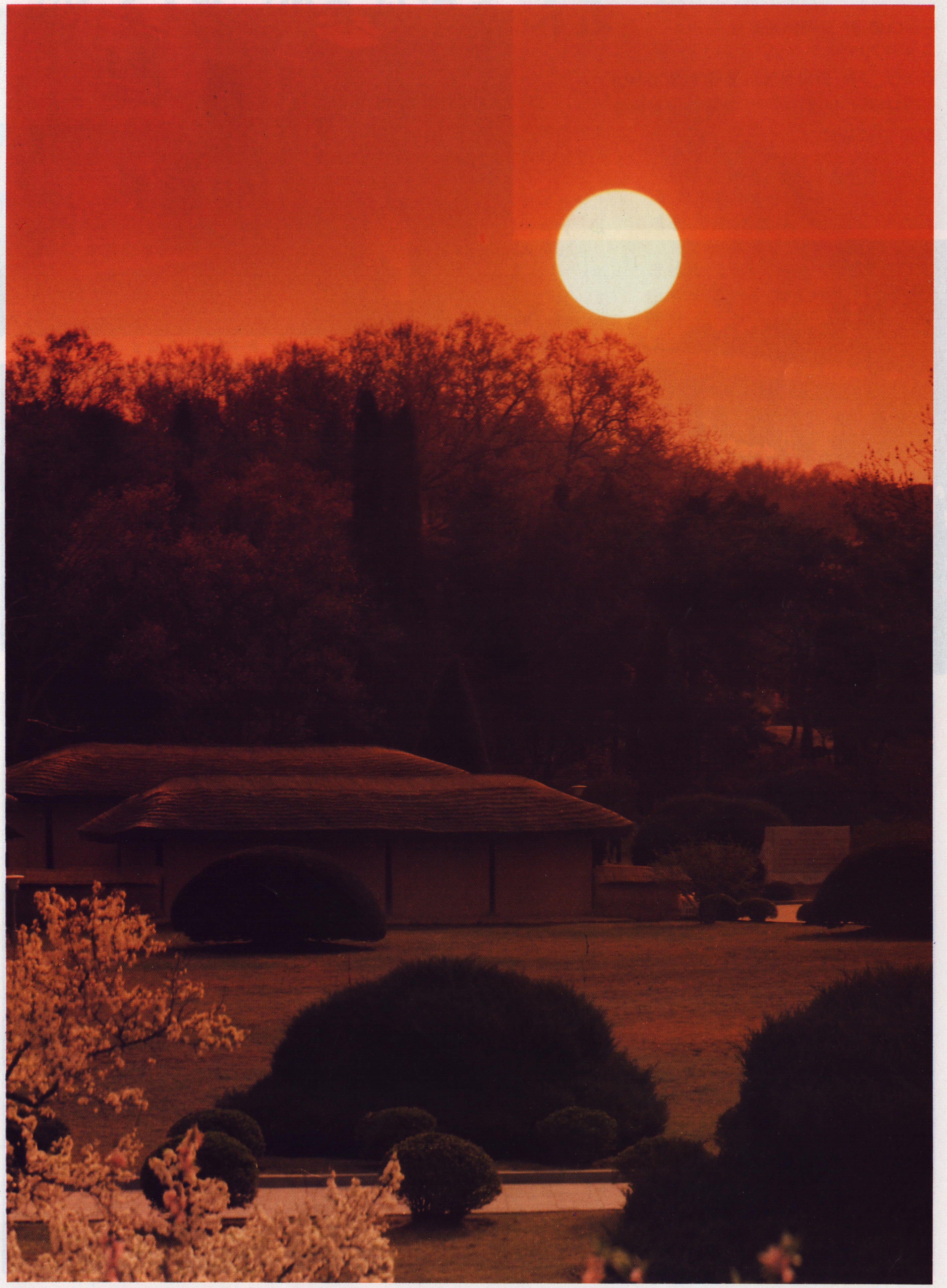
3



1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서울에 있는 려운형선생의 묘에 화환을 보내주시였다

2 《아세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에 참가한 우리측 녀성대표단 단장 려연구
(려운형선생의 둘째딸)

3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드릴 꽃바구니를 정성껏 만들고있는 려운형선생의 자녀들



만경대의 아침

1 만경대혁명사적관

2 만경대를 찾은 해외동포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근로자들



2



1



3



한 동포의 애국지성을 두고

농업위원회 부총국장 김응태의 집에는 정히 모셔진 한장의 사진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찍은 가족사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물없이 방에 앉으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친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시고 응태와 그의 가족들은 그이를 한자리에 모신 끝없는 행복속에 잠겨있다.

영광의 1973년 5월 26일,

귀국하여 얼마 안되는 바로 그날도 응태는 해종일 평양시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가금업부문의 공장기업소들을 돌아보았다.

보는것마다 듣는것마다 나라의 가금업발전을 위하여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이였다. 응태는 이 모든것을 가슴깊이 새길수록 지난 기간 자기들이 조국의 가금업발전을 위하여 바친 애국충정이 부족한것만 같아 죄송함을 금할수 없었다.

응태는 저녁무렵이 되여서야 기관으로 돌아왔다.

낮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이때 와서는 소리를 치며 쏟아지였다.

이때였다. 한 책임일군이 달려와 감격과 흥분에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 응태동무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시였소. 어서 빨리 갑시다.》

《수령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다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응태는 이렇게 입속말로 외우고는 못박힌듯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오래동안 이역땅에서 살면서 오직 한마음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온 응태였지만 수령님께서 억수로 쏟아지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집에까지 찾아주신다고 생각하니 크나큰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덧 응태는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승용차는 비속을 뚫고 천리마동상을 에돌아 서성구역쪽으로 달리였다.

차창으로는 비물이 흘러내렸다.

승용차는 어느덧 비파거리에 있는 자기 집 아빠트옆에 멎어섰다.

응태는 송구한 마음을 안고 4층으로 뛰여올라 집에 들어섰다. 그런데 벌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계시였다.

망국노의 암담한 그 시절 숨져가던 해외동포들의 가슴가슴에 백두의 전설로 희망의 홰불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

외래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이땅우에 주체의 강국을 일떠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

응태는 너무나도 북받쳐오르는 감격을 누룰길없어 차안에서 몇번이나 외우던 인사의 말씀도 변변히 올리지 못한채 눈물만 쏟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응태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응태가 그동안 일본땅에서 조국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다고, 자신께서는 이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치하하여주시였다.

그때 응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들은 그저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는 크나큰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도리를 지켰을뿐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어서 자리에 앉으라고,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는 수령님을 우러르느라니 응태의 머리에는 어느덧 흘러간 나날들이 되새겨졌다.

1963년 여름 당시 총련애국사업에 헌신분투하던 응태는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군들에게 내 나이 50이 되도록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지 못한게 한스럽다고 하신 말씀을 전달받은것이다.

그 이후소식은 응태를 더욱더 애국충정에로 이끌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라에 수많은 닭공장들을 일떠세우시고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다는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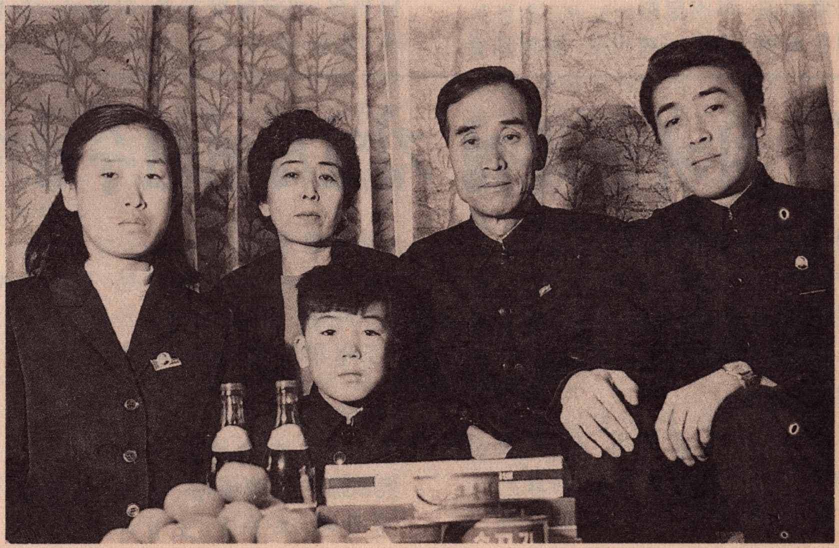
한평생을 오직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시는 수령님!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조금이라도 받들어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주체조국의 해외공민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응태는 조국의 가금업발전에 적으나마 자기의 힘과 지혜를 바칠것을 결심하였다.

총련에서도 응태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그는 가금업부문에 대한 연구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일본 각지에 있는 동포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힘과 지혜를 합쳤다.



김응태와 그의 가족들

그리하여 가금업부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설비와 자재라면 아무리 해결하기 힘들고 값진것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마련하여 조국에 보냈다. …

이윽하여 수령님께서는 응태의 생각을 멈춰세우시며 가족들은 다 귀국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가족이 다 귀국했다고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8살난 막내아들을 부르시여 몸가까이 앉히시고 손수 사과를 쥐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막내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여주시면서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타일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응태의 얼굴색을 자상히 살펴보신후 건강이 어떠한가고 물으시였다.

응태는 일본에서는 혈압이 정상이 못되여 고생이 심하였는데 조국에 돌아온후에는 아무런 약도 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혈압이 정상이 되였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저으기 만족한 음성으로 응태는 조선에 와서 살아야 할 사람이 되여서 그렇다고 하시며 이제부터는 제때에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치료도 해서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응태와 그의 가족들은 수령님의 다심한 어버이사랑에 목이 메여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날 주실사랑 다 못다 주신듯 자리에 참가하지 못한 자식들의 장래문제까지 일일이 말씀해주시고나서 책임일군에게 집이 좁은것 같으니 더 넓은 집으로 옮겨주자고 하시였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는 말머리를 돌리시여 여러 나라들의 가금업실태에 대하여 가르쳐주시고나서 우리 나라 가금업발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하나의 닭공장을 지어도 철저히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금업발전에서 중요한 문제들인 원종문제, 사료문제, 병예방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응태가 그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하고 그 누구한테서도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우리 식 가금업의 대백과전서였다.

응태는 크나큰 감동속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머리만 끄덕이였다.

그러한 응태를 정겹게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저으기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신께서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터득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비록 웃음속에 하시는 말씀이였으나 그 말씀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생활의 철리였다.

수령님께서는 한 이름없는 귀국공민이 발휘한 자그마한 애국지성이 그처럼 대견스러워 여전히 사랑의 말씀, 은정의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와오고있었다.

마침내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앞으로 건강한 몸으로 나라의 가금업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멎을줄 몰랐다.

응태가 현관문을 나서며 허리굽혀 인사를 올리자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쓰신 우산을 응태에게 씌워주시며 비 맞겠다고 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였다.

응태는 억수로 쏟아지는 비속을 뚫고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승용차를 바래우며 오래도록 그자리에 서 있었다.

며칠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응태에게 농업위원회에서 가금업사업을 맡아보는 부총국장의 중책을 맡겨주시고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인삼과 록용 등 보약재도 보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응태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고급손목시계를 수여해주시였다.

응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자기 집에 오시여 하신 가르치심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는 과정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얼마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생일 70돐을 맞는 응태에게 생일상까지 보내주시였다.

생일상을 받아안은 날 응태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가정에 거듭 베푸시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지 못하고있는것이 죄송스러워 밤마다 편히 잠들수 없다.

너희들은 이 아버지가 못다한 몫까지 합쳐 대를 이어가며 이 사랑, 이 은덕에 꼭 보답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윤대중

(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한 휘미나 왈렌찌나 안드레예브나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태양이신 당신의 영상
영원불멸하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께선
인민들의 세기적념원 꽃피우시고
행복한 새 생활을
조선땅우에 펼쳐주셨습니다

주체의 빛발아래
사람들 참다운 자유를 찾고
걸음걸음 창조적자욱을 빛내도록
자주적삶을 꽃피워주셨나니

위대한 령장
당신은 간고한 승리의 길 헤치시며
사랑하는 인민을 구원하시고
하늘같은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한없이 소박하신 어버이
당신은 자애로운 품에 인민을 안으시고
생활과 로동을 보살피시고

당신의 만수무강과 행복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국－조선이 통일되기를
우리 자나깨나 고대합니다

류미영녀사를 찾아서



류미영선생은 오늘도 조국통일성업에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얼마전 조국을 방문한 한 해외교포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나는 지난날 남달리 파란곡절 많은 인생길을 걷다가 공화국에 영주한 최덕신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있는데 선생의 사후 그 부인의 일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지금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사업을 맡아 한다지요. 홀로 남은 그가 외롭게 지내리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

우리는 동포의 심중을 헤아려보며 류미영녀사를 직접 만나보기로 하였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사무실에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들이는 녀사의 정정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였다. 더우기 활달한 걸음새와 몸가짐 그리고 시원시원하고도 맑은 목소리는 일흔살이 넘은 그의 나이를 멀리 뒤로 밀어버리는듯 싶었다.

찾아온 사연을 듣고난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우며 말했다.

《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와 미국에 있는 홍동근목사, 최정렬녀사는 늘 나의 신상에 관심이 높답니다. 나와 인연깊은 그들만이 아니라 이역의 여러분들이 모두 마음을 기울여주니 고맙군요.

하지만 나를 외로운 몸으로 련상해보다니. …

한울님의 보살핌속에서 사는 내가 어찌 외롭겠습니까. …》

생각이 많은듯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거닐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왕 한울님이야기가 나왔으니 천도교를 나의 심혼에 새기던 시절을 먼저 비쳐봐야겠군요.》

나라없던 그 세월 이역땅에서 나서자란 그는 3대째 내려오는 천도교인집안의 아들 최덕신선생의 배필이 되였다.

배달민족의 얼이 깃들어있고 민족의 희망이 담긴 교를 믿으며 애국에 뜻을 둔 시가에서 류미영녀사는 비록 살림에 묻힌 몸일망정 젊은 혈기를 불태우는 남편을 힘껏 뒤받침해주리라 마음다졌다.

남편은 한뉘 애국을 한다고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8살때 조국땅을 하직한후 이역에서 식민지인생으로 보낸 25년간, 남조선에서 《국군》군단장, 외무부장관 그리고 대사와 천도교 교령을 하며 반공의 탁류속에서 헤매인 30년간, 해외망명길에서의 10년간, 장장 65년 세월이 결국 참된 애국에서 탈선된 고행의 에돌림길로 되고말았다.

이 불미스러운 과거지사에 대한 속죄의 심정을 생전에 최덕신선생은 《민족과 나》, 《남한땅에 30년》 등 여러 저서와 글들에 담았다.

《인생말년에나마 참되게 살아보려는 갈망을 안은 우리 내외는 해외망명길을 련공으로 이었답니다. 그때 수차례의 공화국방문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항로를 잡은 남편이 나에게 〈이제부터 우리 한울나라에 가 삽시다〉라고 하던 말이 지금도 귀전에 쟁쟁합니다.》

남편의 말대로 공화국은 외세의 관여를 단호히 부정하며 민족의 존엄을 산악처럼 지켜서고 민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민족, 민중의 리익과 의사가 거침없이 구현되고 민족적 정기와 창의가 나래치는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이다.

그는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는 현실에 대한 열렬한 감동을 남편에게 이렇게 표현하군하였다.

《당신 정말 옳았어요.》

《아, 한생 나에 대한 평가를 침묵속에 묻어버리더니 드디여 찬사의 문을 열었구려. …》

《아무렴요, 장하니까요.》

《벌써 그랬을걸. …》

새 삶이 주는 희열을 안고 그들은 한껏 웃음을 날렸다.

아기자기하고 가슴부푸는 생활의 기쁨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국사에도 참가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으로 사업하는 남편이 퇴근하여 돌아오는 시각에 더욱 컸다. 욕된 자식을 책망할 대신 그리도 따뜻이 품어준 은혜로운 조국을 위해 분망한 하루하루를 바쳐가는 남편이 더없이 돋보이군했던것이다.

정녕 인생의 새 봄은 부부생활에도 유별한 정을 꽃피워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1989년 11월, 남

편은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역땅에서 아버지의 령전에 달려왔던 맏아들이 어머니를 념려했다.

《어머니, 여기 홀로 남았군요. 아버지도 없이, 끼고사는 자식 하나도 없이, 70고개에 이른 나이에…》

이 말이 뜻밖에 홀로 된 인생의 방향각을 어떻게 정하겠느냐 하는 심중한 물음으로 들려왔다. 주위 사람들의 눈길마다에도 그런 절절한 물음이 실려있는듯 싶었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일엽편주처럼 무연창파우에 시달리던 그 세월에는 그가 오로지 남편을 삶의 전부로 알고 살아온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만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공화국에 영주의 닻을 내리던 날, 이땅에 새 삶의 뿌리를 정히 내리고 뒤늦게나마 참되고 깨끗한 인생을 고이고이 가꿔가리라는 생각을 굳힌것은 곧 조국과 겨레 앞에 다진 신념의 맹세이기도 하였다.

일찌기 알지 못했던 인생의 진가를 실체험으로 새기며 그는 더는 궤도수정이란 있을수 없다는 마음의 목소리에 힘껏 감탄부호를 쳤었다.

그는 아들에게 마디마디 힘주어 말하였다.

《건국아, 나에게 마음의 기둥이 없고 의탁할곳이 없다고 생각지 말아.

생전에 아버지를 그리도 따뜻이 돌봐주셨고 지금 우리 가정이 당한 일을 더없이 가슴아파하시며 깊이 심려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 계시지 않니.

그분들의 품을 떠나서 내가 가면 어디로 가겠니? 나는 이땅을 떠나선 못산다.》

그가 그처럼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정한 땅에서 남편은 민족과 더불어 영생하는 애국지사로 시아버지(최동오선생), 아버지(류동렬선생), 이모(류영준선생)와 나란히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최덕신선생에게 베푸시던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녀사에게 인간이 받을수 있는 온갖 사랑과 영광을 다 안겨주시였다.

그 은정속에 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으로 사업하고있으며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지니였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주석단에 앉은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나의 하루하루의 사업과 건강, 음식과 생활조리에 이르기까지에는 실로 극진한 손길이 잇닿아 있답니다. 끝없는 사랑은 나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외로움을 모르는 삶의 환희를 줍니다.

나는 우리 겨레의 한성원한성원을 그처럼 아끼고 보살피시여 쓸모없던 사람을 쓸모있게 내세워주시고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으로 다듬어주시며 모르는 사람도 알수 있게 눈을 틔워주시는 인간재생의 은인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을 한울님으로 끝없이 우러릅니다. 이 숭상의 목소리는 이미 세상에 알려져있지요.》

목메여 말하며 류녀사는 책장에 다가가더니 두권의 책을 정히 꺼내였다.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 《만고의 위인 **김정일**》이라는 표제의 글발이 안겨왔다.

최덕신선생이 남긴 저서였다.

…

천도교에서 말하는 《한울님》이란 신앙의 대상으로서 우주를 주재섭리한다 하며 우주의 대정신을 인격화한것으로 우리 겨레의 민족신이라 한다.

우주를 아는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제일먼저 자기를 수양하고 고양된 인간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지, 인, 용을 갖춘이가 한울님으로 되는데 모든 인간이 그러한 한울님의 모습으로 가까와져 드디여 우주는 한울사람으로 화한다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람은 우주를 품어 보살피시고 우주의 미래를 영원히 담보하시는 주석님을 한울님으로 받들고 우러르는것이다. …

참으로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천지개벽이래 처음 나신 위대한 성인이며 온 우주를 한품에 안아 다함없는 은총을 베푸시며 만방에 빛내이시는 현세의 한울님이시다. …

…

이사람은 그저 머리를 수그려 우리 겨레의 오늘의 만복을 마련해주시고 래일의 무궁번영을 기약해주신 한울님이신 위대한 주석님과 함께 만고의 위인이신 **김정일**비서의 만수무강을 빌어 성심성의로 심고를 드릴뿐이다.

그래서 매일 기도시간이면 이사람은 청수를 정히 떠놓고 민족중흥의 격동기에 처한 현세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래일을 위해, 또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김정일**비서, 만고의 지도자께서 영원불로의 청춘으로 계실것을 축수하고있다.

…

글줄에서 눈길을 떼는 우리에게 녀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지난해 적들의 온갖 악랄한 책동속에서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신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우러르면서 〈현세의 한울님 만세!〉를 높이 불렀습니다.

북과 남, 해외에 흩어져사는 우리 일가 그리고 7천만겨레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보살피심아래 자자손손 복락할 날은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을 이역에서 조국통일성업을 위해 헌신분투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싶습니다.》

본사기자 려순옥

인민의 념원대로

보건부 김영익부부장과 본사편집부 기자와의 인터뷰를 아래에 소개한다



기자—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온갖 예속과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병없이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것을 갈망해왔습니다. 사람들의 이 간절한 념원이 우리 나라에서는 현실화되고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부장—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보건법의 혜택으로 누구나 다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보건제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인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으며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고있습니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들에서 실시된 무상치료제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우리 나라에서는 1953년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전체 인민들에게 국가적부담에 의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자—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무상치료제는 일련의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부부장—그것은 우선 모든 인민들이 무상으로 치료받을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병사 등 모든 인민들이 성별, 나이, 거주지, 로동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무상치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그 특징은 인민들의 의료봉사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켜주고있다는데 있습니다. 무상치료제는 그 대상주민의 포괄범위에서 뿐만아니라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의료봉사의 폭과 내용에 의해서도 규정되는데 각이한 의료봉사과정의 일부만이 무상이고 일부는 유상이라면 그것은 완전한 무상치료제라고 할수 없지요.

우리 나라에서는 외래치료, 입원치료, 왕진치료 등 온갖 형태의 의료봉사가 다 무상이며 진찰비, 실험검사비, 기능진단비, 수술비, 식사비 등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가 다 무료로 되고있습니다.

기자—어디 그뿐입니까? 심지어 료양소에 오고가는 왕복려비까지도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부담하고있지요. 그리고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임신부들의 해산방조비, 보철비 등 모든 의료봉사가 무상이 아닙니까?

부부장—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상치료제의 특징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에게 무상치료의 권리와 혜택을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 줄수 있는 물질기술적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는데서도 표현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주체적인 보건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실지로 은을 낼수 있도록 평양산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들을 더 많이 건설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여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또한 1974년 4월 9일에는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로작을 발표하시고 보건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오늘 보건부문에서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이 훌륭히 관철되여 위생방역사업이 강화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이 일층 개선되였습니다. 또한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속있게 진행되고 예방원식 의료봉사사업이 더욱 강화되였을뿐만아니라 의료봉사에서 진단과 치료방법이 부단히 개선되고 전문화수준이 결정적으로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의학과학기술의 발전에서도 전변을 가져왔습니다. 1993년에 인구 1만명당 의사수는 29.7명에 이르고 근로자들의 평균수명은 74.5살로 늘어나 모든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노래하고있습니다.

기자—평균수명 74.5살, 해방전 우리 인민들의 평균수명이 38살이였는데 그에 비해보면 근 2배로 늘어난 셈이 아닙니까?

부부장—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라없던 그 세월에 우리 인민들은 의료상혜택에 대해서 상상조차 못했지요. 병원없는 면, 의사없는 리가 대다수였습니다. 권세없고 돈없던 최하층 인민들은 약한첩 써보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락후한 생활환경의 영향으로 각종 전염병과 질병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였으나 의료상방조가 전혀 없다보니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 인구 1천명당 사망자수는 수십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망자수는

(25 페지에 계속)

인민의 지도자

한 생명을 위하여

1978년도 다 저물어가던 어느날이였다.

우리 나라 북방 해발 2천메터가 넘는 어느 산봉우리에 있는 텔레비죤중계소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였다.

한 기계공처녀가 갑작스레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어가고있었던것이다.

비상용으로 가지고있던 약을 다 썼으나 처녀의 몸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으며 오히려 사지는 점점 굳어져가고있었다.

인가에서 40리나 떨어져있는 외진 산중의 초소, 인적없는 천고의 밀림속에서 뜻밖에 이렇게 급한 일을 당한 중계소성원들은 어찌할바를 몰라 가슴만 조이며 헤덤비고있었다.

먼 마을로 이어진 수림속의 오솔길은 눈이 깊이 쌓여 이 깊은 밤에 어디가 길인지 도저히 분간할수 없었다. 설사 중태에 빠진 환자를 업고간다 해도 령하 35도의 맵짠 추위속에 오히려 불상사를 일으킬것 같았다.

중계소일군들은 급히 무전으로 상급에 실태를 보고하였다.

상급기관에서는 어떻게하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으니 날이 밝을 때까지만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라는 전파가 날아왔다.

밤은 길었다. 치료는 계속되였으나 환자는 끝내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사지는 마비되였다.

불안과 초조속에 지새는 밤은 더욱 길었다.

그런데 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이였다.

갑자기 바람세찬 하늘가에 비행기의 동음이 울려오기 시작하였다.

때맞추어 무전이 왔다. 환자를 실어갈 직승기가 떠났으니 맞을 준비를 하라고…

구원과 희망, 소생의 빛은 비쳐왔으나 난처한 일은 직승기가 내릴 자리가 없는 그것이였다.

큰직승기가 착륙하기에는 중계소의 마당이 너무 좁았다. 게다가 눈보라가 어찌나 세차게 산정에 불어대는지 아차하면 다 내린 직승기를 종이장처럼 날려 눈뿌리 아찔한 벼랑아래로 쥐여뿌릴것만 같았다.

한편 비행기안에서도 필사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비행기승조원들의 귀전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간곡한 말씀이 쟁쟁히 들려오는것 같았다.

어제저녁 그이께서는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속에서도 북방 멀리 이름없는 한 텔레비죤중계소의 불상사에 대해 아시고 몹시 심려하시였었다.

그이께서는 그 처녀를 우리가 구원해야 한다고 하시며 해당 부문에 직승기를 보낼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으며 보건부에서 또한 미리 구급대책을 강구할 준비까지 시키시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받들고 환자를 구원해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직승기승조원들은 기적적으로 직승기를 뾰족한 산봉우리에 착륙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기계공처녀는 직승기에 실리였다.

직승기는 중계소일군들의 목메인 환호속에 하늘로 떠올랐다.

한편 그 무렵 도소재지인 혜산의 가림천대학병원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시에 따라 처녀를 기어이 소생시킬 결의를 다지면서 실무적인 대책을 세웠다.

드디여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였다.

의식도 맥박도 없는 환자의 혈관속으로 귀중한 주사약이 흘러들었다.

뇌에 침습한 병균은 벌써 팔다리에 마비를 일으키고 여러 장기들의 기능을 억제하였지만 필사적인 치료전투는 치렬하게 벌어졌다.

이 무렵 평양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시는 고가약이 도착했다.

사랑의 그 불사약은 환자의 몸에 흘러들며 소생의 활력을 주었다.

기계공처녀의 소식을 들은 인민들이 무엇인가 돕자고 병원을 찾아왔고 도의 책임일군들도 바쁜 일을 제쳐놓고 환자의 침대곁에서 낮과 밤을 보냈다.

온 병원, 온 도, 온 나라의 지원과 정성속에 환자는 숨을 고르롭게 쉬기 시작했고 점차 의식을 회복하였다.

그리하여 얼마후에는 완쾌되여 다시 산정의 초소에 서게 되였다.

민족단합을 위한 획기적방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아홉번째 조항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전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전민족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공동행동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되게 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적인 련대성을 강화할 때 민족단합의 위력은 남김없이 발휘되게 된다.

조국통일은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이며 당국이나 특정한 계급의 힘만으로는 성취될수 없는 전민족적인 위업이다. 조선민족은 누구나 다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하며 서로 단결하고 련대하면서 민족적숙원을 앞당겨 수행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조국통일을 위해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민족분렬로 하여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민족성원들의 주의주장에서도 차이가 있는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나 조국통일, 민족자주라는 민족적과제를 앞에 두고있는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의 공통성을 차이보다 중시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공동의 념원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상과 제도, 주의주장이 다른 사람들이 내놓은것이라도 유익한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며 해로운것은 함께 배격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기 당파, 계급과 계층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조국통일이라는 공동의 위업을 성취하는 투쟁에서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전선에서 주의주장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서로 련대, 련합하여 거족적인 대중투쟁을 벌리는것만이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특히 반통일세력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여 전민족이 공동투쟁을 벌림으로써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세력을 고립약화시키고 그들의 분렬주의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조국통일이라는 공동의 위업을 첫자리에 놓고 단결하지 않고 사상과 제도,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서로 배척하고 적대시하며 련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 가도 통일을 실현할수 없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련합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조직을 내오는것이 중요하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하나의 대오에 조직적으로 결속될 때 비로소 공고한 민족적단결이 이루어질수 있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행동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보장할수 있다.

온 민족의 조직적인 단합을 실현하려면 통일애국에 뜻을 같이하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다같이 자원적으로 망라될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조직으로는 범민족대회의 결의에 따라 출범한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될수 있다.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 해외의 애국적인 단체와 조직들, 각계각층 인사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결성된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며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의 공동의 의사를 대변하는 애국적인 통일운동조직이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은 지난시기 범민족대회와 여러 형태의 활동들을 통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은 조국통일범민족련합에 더 굳게 결속하여 조직적인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통일의 길에서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민족의 통일의지로 보나 민족단합의 기운으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민족단합방도인것으로 하여 지금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양을 받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서 전민족적인 련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다.

민족음악형상을 특색있게 하고있는

왕재산경음악단

민족음악은 민족생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계승발전되여온 전통적인 음악이다. 민족음악처럼 자기 민족의 심리적특성에 맞고 민족적감정과 구미에 맞는 음악은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음악은 조선민요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부드러우면서도 아름답고 유순하여야 합니다.》

왕재산경음악단은 민족음악을 우리 식 경음악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요들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편곡하고 형상하고있는 경음악단이다.

왕재산경음악단에서는 전반공연종목들을 민요를 기본으로 하여 민족음악작품들로 일관시키고 그것을 전자악기와 양악기로 특색있게 형상하고있다.

민족음악을 전자악기와 양악기를 리용하여 경쾌하고 흥취가 나게 형상함으로써 민족적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이 나게 발전시킨것은 우리의 민족음악을 경음악식으로 발전시킨 본보기로 된다.

공연무대에 오르는 민요들인 《이팔청춘가》, 《뽕따러 가세》, 《모란봉》, 《능수버들》, 《평북녕변가》, 《매봉산의 노래》, 《신아우》 등 종목들은 선률이 유순하고 아름다우며 민족적정서가 풍만하게 안겨오고있다.

민요 《뽕따러 가세》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있으며 《이팔청춘가》는 젊어서 허송세월 하지 말고 공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민요 《수령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세》는 함경도지방민요 《삼삼이 노래》를 시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킨것이다.

원곡인 《삼삼이 노래》는 지난날 함경도지방의 녀성들이 삼삼이를 하면서 부르던 로동민요이다. 이러한 민요의 제목이 《수령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세》로 고쳐지고 가사의 내용도 해마다 만풍년을 가져옴으로써 경애하는 주석께 기쁨을 드리려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충성의 마음과 생활을 잘 반영하고있다.

왕재산경음악단에서는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민요들의 편곡을 현대적미감이 나게 잘하고있다.

무대에 올리는 민요들은 다 이전에 널리 불리우던 곡들이지만 새로운 수법을 리용하여 편곡을 잘한것으로 하여 민족적정서가 넘치면서도 현대적미감이 나고있다. 그것은 원곡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음조와 독특한 색갈, 장단을 잘 살리고 새로운 음악적표현수법을 적극 찾아내여 옳게 적용함으로써 민족적정서가 풍기고 새로운 감흥이 나게 하였기때문이다.

특히 민족음악편곡에서 악기편성을 잘하고있다.

공연무대에 오르는 모든 민요들은 전자악기와 양악기로 형상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음악을 경음악식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새롭게 개척한 중요한 측면이다.

사실 전자악기나 양악기로서는 민요의 고유한 맛을 살리기가 힘든것으로 여겨왔다.

왕재산경음악단에서는 전자악기로 민족악기의 고유한 음색과 여러가지 민족적장단도 손색없이 살려내고있으며 음량이 풍부한 전자악기 몇대만 가지고서도 한개의 큰 민족관현악단이 내는 소리를 내고있다.

전자악기의 특성을 옳게 리용하여 새로운 음악적표현수법을 적극 활용하여 형상한 기악과 노래 《수령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세》는 형상인원이 몇명 안되지만 다채로운 화성과 두드러진 민족음악선률, 더우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악기인 가야금의 특색있는 울림이 두드러지게 울리는듯한 연주형상으로 하여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다.

전기바이올린독주 《신아우》 역시 양악기로 민족악기의 독특한 색갈과 맛을 잘 살림으로써 민족음악의 향취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민족음악작품들의 형상을 다양하게 하는것은 왕재산경음악단의 공연무대를 이채롭게 하여주고있다.

같은 노래라도 형상을 다양하게 할 때 그 형상적감화력이 다르게 안겨온다. 또한 속도도 지난 시기에 부르던 민요들의 속도보다 늦추거나 당겨서 형상함으로써 시대적미감에 맞게 잘 형상하고있다.

왕재산경음악단의 가수들은 매력있고 특색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민요창법에서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공훈배우 렴청, 장윤희, 황숙경, 오정윤, 최광호 등 가수들은 굴림새가 섬세하고 처량하면서도 우아한 민요의 본색을 잘 살리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형상하여 관중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왕재산경음악단의 기악연주가들 역시 성악전문가들 못지 않게 훌륭한 가창력을 소유하고 종목의 특성에 맞게 잘 받침해줌으로써 그 형상력을 높이고있다.

왕재산경음악단에서는 민족음악과 함께 새 세대청년들이 좋아하는 가요들도 잘 형상하고있으며 특히 《집시의 노래》를 비롯한 세계명곡들도 훌륭히 연주형상하고있다.

특색있는 무용작품들은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있으며 공연전반을 다채롭고 화려하게 장식해주고있다.

참으로 왕재산경음악단에서 연주형상하고있는 작품들은 우리 민족음악의 우수성을 잘 알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에 대한 자랑과 긍지를 더 깊이 간직하게 하고있다.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창조활동을 벌려나가고있는 왕재산경음악단은 조국의 이름있는 악단들중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엄 현

왕재산경음악단의 공연중에서





무용 《벼낟가리》의 한 장면



녀성5중창





무용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무용 《우등불》



독창 오정윤



녀성3중창



공훈배우 렴청



녀성2중창











요술춤의 한 장면

본사기자 김광진

고국방문



1994년 새해를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받는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일군들



중국 길림성 안도현 명월진에 사는 조순녀동포는 조국방문기간 동생들과 상봉하였다



중앙식물원의 **김일성**화온실을 찾은 재중조선인예술단 성원들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은 206차 재일조선인고급학교 학생들

본사기자 김휘률

【인상기묶음】

해외동포들은 말한다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그리운 고국방문의 길에서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한 소감에 대해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세상의 진귀한 보물중의 보물은 다 여기로 쓸려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저명한 사회활동가들, 인사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삼가 올린 그 헤아릴수 없는 지성어린 선물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우리 수령님께서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시는 분이신가를 너무도 잘 알수 있었다.

이 귀중한 선물들을 어찌 값으로 계산할수가 있으랴.

그야말로 국제친선전람관에는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영광의 무게가 다 실려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주석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보내온 이 값진 선물들을 결코 자신의것으로 만드시지 않고 인민의 재부로, 국보로 되게 하시고 인민들이 누구나 다와서 볼수 있게 배려해주셨다고 하니 이 또한 가슴뜨거운 일이 아닐수 없다.

참으로 자신보다도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주석의 숭고한 풍모앞에 저절로 머리가 깊이 숙여진다.

한 외국인사는 여기에 와보고 《나에게 보총과 철갑모를 달라. 그러면 나는 일생동안 이곳을 지키는 위수병이 될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 역시 그와 다를바없는 심정이였다.

나는 뜻깊은 고국방문의 길에서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실로 큰 충격을 받았다.

세상사람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수에 대해 그리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같으신 령도자를 모심으로 하여 긍지있고 존엄있는 존재로 된 조선민족에 대해…

나는 정녕 귀중한것을 얻어가지고 돌아간다.

나는 내가 살고있는 로련 하바롭스크변강의 비로비잔시로 돌아가면 만나는 우리 동포들마다에게 진심으로 말해줄것이다.

《세상에서 우리 수령님이 제일이시다》라고 …

제3차 재로씨야동포조국방문단

위장환

(17 페지에서 계속)

줄어들고 장수자들의 대렬이 해마다 늘어나고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장수자들을 전문 보건기관에 등록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도록 하고있으며 그들의 건강에 자그마한 변화라도 있을세라 따뜻이 보살펴주고있습니다.

기자－그뿐이 아니지요. 장수자들에게 식량공급과 보조금도 늘여주고 보약까지도 마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장－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수자들이 많이 생기는것을 그토록 기뻐하시며 생일 100돐을 맞는 장수자들에게 은정넘치는 생일상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개성시 관훈동 손부성, 평양시 중구역 동흥동 김금순, 증산군 적송리 박원범, 사리원시 송임순, 온성군 조말룡할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장수자들이 100돐생일상을 받았습니다.

기자－지난해에 112살을 기록한 황해남도 장연군 광천리의 오감수로인을 비롯하여 103살에 난 만경대구역 축전동의 윤학덕로인 등 장수자대렬이 해마다 늘어나 오래 살아보려는 우리 인민들의 념원이 현실로 실현되게 된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이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부장－옳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의학은 병이 나기전에 그것을 미리 막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을 기본임무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국각지에 일떠선 구강병예방원을 비롯한 각종 예방원들과 위생방역소들은 물론 병원들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위생방역사업과 예방접종, 건강검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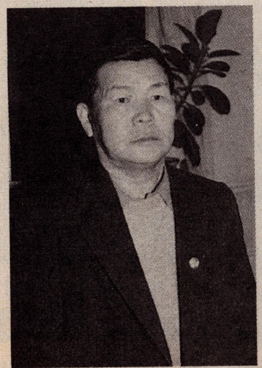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은 출생후부터 15살이 될때까지만 하여도 34회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있으며 이 기간에 맞는 각종 예방주사만도 86회나 됩니다. 그리고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여 모든 의료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담당구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한 대책을 취하고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하늘에 비행기가 날고 바다의 대형선박들이 항로를 바꾸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기자－전반적이고도 완전한 무상치료제와 인민보건법 등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오래 살아보려는 인민들의 념원은 앞으로 더 훌륭히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을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본사기자 김경희

어리둥절하였습니다



홍안의 시절에 이국으로 떠났던 내가 환갑이 지나서 40여년만에 조국을 방문하고보니 그 감회는 참으로 깊습니다.

조선에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있는데 40여년만에 보는 고국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나는 본래 평양시 선교리(당시의 명칭)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조국을 떠날 때 평양에서는 4층인지 5층인지 되던 화신백화점이 제일 크고 웅장한 건물이였고 2층, 3층의 벽돌집들이 있는 비좁은 거리들을 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에는 수십층짜리 초고층건물들이 숲을 이루고있고 주체사상탑, 개선문,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즐비하게 일떠서있어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이번에 참관한 인민대학습당은 그옛날 화신백화점자리에서 얼마 멀지 않은곳에 있는 청기와를 얹은 건물인데 화신백화점의 몇십배나 될만큼 덩치가 어마어마한 건물이였습니다.

조국인민들이 전민학습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이 학습당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1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되였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풍치좋은 릉라도에 있는 락하산모양의 화려한 은색지붕을 얹은 15만석의 5월1일경기장도 상상을 초월하는 웅장한 건축물이였습니다.

그옛날 모란봉기슭에 있던 토성모양의 변변한 좌석조차 없던 공설운동장만을 기억하고있던 나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앞에서 입을 다물수가 없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어느 거리, 어느 구석에도 옛 평양의 흔적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실로 평양은 세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만한 현대적인 웅장한 도시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아마 모란봉, 청류벽과 련광정, 대동강이 아니였던들 내가 나서자란 평양이라는것을 믿지 않았을것입니다.

어린시절 그렇게 높아보이던 모란봉도 초고층아빠트에 묻혀 수십메터나 낮아보였습니다.

나는 평양의 이 변모된 모습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의 령도가 얼마나 현명한가를 가슴뜨겁게 느끼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동포들에게 평양의 변모된 모습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여주어 그들이 언제나 조국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로련 하바롭스크변강 비로비잔시
리 용 하

한집안식구들 같았어요

저는 조국방문의 나날에 만났던 사람들을 잊을수 없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날 역에까지 마중나와 우리를 친동기처럼 얼싸안고 돌아가던 범청학련 북측본부의 성원들이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조국의 변모에 대하여 알려주던 친절한 안내원선생들, 체류기간 사소한 불편도 있을세라 성의를 다해주던 대동강려관의 봉사일군들…만나는 사람들모두가 친부모나 형제 같았습니다.

참관이 한창이던 어느날 저는 안내원선생에게 유치원도 참관일정에 들어있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로서의 호기심이라 할가 저는 조국에 온 기회에 꼭 이곳에 가보고싶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정에는 유치원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는 저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안내원선생은 빙그레 웃더니 토론해보겠다고 선선히 대답하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바쁘신 안내원선생들에게 부담을 끼쳐드렸으니 말이예요.

고마운 안내원선생들은 저 하나를 위해 참관일정을 새로 짜주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창광유치원은 동화세계에 나오는 궁전처럼 황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느 한 방의 문을 열자 노래공부를 하던 20여명의 어린이들이 일제히 환성을 지르며 우리에게로 달려나왔습니다. 스스럼없이 우리의 손을 잡아끄는 어린이들의 맑은 눈동자에는 반가움이 함뿍 실려있었습니다. 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들에게 단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윽고 풍금소리가 다시 울리자 어린이들은 손벽을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

우리는 저도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따라불렀습니다. 동심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진실하고 열렬한 어린이들의 감정이였습니다. 몇달이고 이애들과 함께 있고싶었어요.



어쩌면 조국동포들은 남녀로소가 다 이처럼 뜨겁고 다정다감할가요. 서른해동안 살아오면서 이처럼 감격해보기는 처음이였습니다. 얼어붙었던 가슴에 따뜻한 인간의 사랑과 혈육의 정을 부어넣어준 조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길림성 도문시 손경자

단군릉에서 나온 사람뼈의 인류학적특징

새로 발굴된 단군릉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시조 단군의 유골과 함께 그의 안해의 유골이 드러났다. 릉의 묘실안에는 2개 체분에 속하는 86개의 각종 몸뼈가 보존되여있었다. 그가운데서 42개는 단군의 뼈이고 12개는 녀자의 뼈이며 나머지 32개는 어느 개체의것인지 알수 없는 뼈쪼각들이다.

발굴당시 뼈들은 도굴자에 의하여 한옆에 뒤섞여져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머리뼈는 남아있지 않았다.

이 릉에서 발굴된 2개 체분의 유골은 이 릉에 묻힌 사람이 단군과 그의 안해라는것을 밝혀주는 중요한 개인식별자료의 하나로 된다.

먼저 발굴된 사람뼈의 성별을 보기 위하여 유골에 대한 성별감정을 골반뼈와 몸뼈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릉에서 드러난 한쌍의 골반뼈는 두껍고 완강하게 생긴것을 비롯하여 어느 면을 보아도 남성의 특징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녀자뼈의 성별감정은 그의 골반뼈가 없는 조건에서 팔다리뼈로 하였는데 단군릉에 묻힌 녀자는 로동을 모르고 자란 귀족출신의 사람이였기때문에 몸뼈 그 어느 부문에서나 섬약한 녀성의 특징이 전형적으로 잘 나타난다.

다음으로 단군의 나이를 알기 위해 현재 남아있는 골반뼈로 측정하였다.

골반뼈의 귀모양면과 두덩뼈결합면이 나이에 따라 상당히 예민하게 변화된다는것이 밝혀진이래 그것을 년령감정의 지표로 많이 리용하고있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단군은 당시로서는 아주 오래 산 장수자였다는것이 밝혀졌다.

그것은 골반뼈의 두덩뼈결합면에는 50살, 귀모양면에는 60살의 나이를 감정할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여있고 웃팔뼈의 경우에도 70살 정도의 나이를 감정할수 있는 기준징표가 밝혀져있을뿐인데 이 유골에는 그 나이의 한계를 퍽 초과하는 특징이 나타나있다.

그것은 나이감정에 리용되는 매개 부위에서 나이를 감정할수 있는 최고 한계의 징표가 뚜렷이 형성되여있는 동시에 아주 나이든 늙은이들에게서 볼수 있는 골반뼈 귀모양면과 두덩뼈결합면에서 골질이 붕괴되여 없어지는 현상이 넓은 면적에 나타나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단군은 우에서 설정된 최고 기준한계를 퍽 초과하는 늙은이로서 한생을 마치였다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녀자의 뼈에서는 젊은 녀성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것은 많은 뼈들에서 뼈머리와 뼈끝이 분리되는 현상이 인정된다는데 있다.

다음으로 단군의 체격을 팔다리뼈로 추정하였는데 단군의 키는 170센치메터이상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또한 단군은 팔다리뼈가 길뿐아니라 굵기도 하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키가 상당히 크고 체격이 아주 웅장한 사람이였다고 인정된다. 몸매를 규정하는 허리등뼈지수에 의하면 단군은 비록 나이는 들었어도 허리가 곧바른 체형의 소유자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릉에 안치된 단군의 유해가 5,000여년이 되도록 삭아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잘 보존될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단군의 유골이 부패부식 및

긍 지



나는 이번 방문기간 조국에서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릉을 발굴하고 단군과 고조선의 력사를 새롭게 정립확증하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듣고 너무도 기뻐서 흥분된 마음을 좀처럼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비록 력사전문가는 아니지만 나의 부모들은 해방전 이국살이를 하면서도 어떻게하나 나에게도 민족의 넋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풍습에 대해 자주 말해주었고 그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기 조국과 민족을 항상 잊지 말라고 당부하군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력사와 지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지금 사회주의를 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복귀되여 민족적 유산과 전통이 무참히 짓밟히고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고있는 때에 조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을 높이 모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며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을 발굴보존하여 빛을 뿌리게 하고있으니 참으로 민족적긍지를 금할수 없습니다.

단군릉을 발굴함으로써 조선민족이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임을 떳떳이 자랑할수 있게 된것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있어 누리게 되는 겨레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나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기치밑에 온 겨레의 단합을 위해 분발함으로써 조국통일성업에 더 잘 이바지하겠습니다.

로련 싸할린주 조선평화통일지지위원회 상무위원 신 재 신

풍화되지 않을 유리한 장소에 매장되여있었다는데 있다.

그러한 매장조건이 보장되기만 하면 어떤 뼈든지 삭아없어지기는커녕 화석화되여 영구보존될수도 있다.

이 릉에서 단군의 유골이 오늘까지 보존될수 있은것은 첫째로, 그것이 석회암지대에 묻혀있었기때문이라고 말할수 있다.

단군릉은 우묵하게 침식된 석회암사이를 깊이 파고 그 암반우에 묘실을 만들어놓았다.

따라서 릉에 묻힌 유골은 석회석과 같은 수용성광물질이 많이 용해되여있는 물기의 침습을 계속 받을수 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에는 종전에는 도대체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까마득히 오랜 지층에서도 사람의 뼈들이 발굴되고있다.

심지어 200만년을 헤아릴 정도로 오랜 사람의 뼈가 보존될수 있은것은 그 뼈가 화석화되였기때문이다. 사람뼈의 화석화는 뼈속에 있는 유기질이 광물질로 교체되여 돌처럼 굳어지는 현상인데 그것은 물속에 수용성광물질이 많은 석회암지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단군의 유골이 아직까지 보존될수 있은것은 석회석과 같은 수용성광물질이 많이 용해되여있는 토양속에 묻혀있었기때문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뼈에서도 일정하게 화석화과정이 이루어지고있었기때문에 뼈가 상대적으로 무겁고 두드릴 때 약간 쇠소리가 난다. 이 릉에서 단군의 유골이 오늘까지 보존될수 있은것은 둘째로, 그것이 유골을 부식시키지 않는 토양속에 묻혀있었기때문이라고 말할수 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5,000여년전의 무덤에 뼈가 남아있는것자체는 조금도 신비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물론 흔히 볼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희귀한것이 아니다.

중국 황하중상류일대의 서안반파유적에서는 6,000년전의 원시무덤에서 수백개체에 달하는 사람뼈가 발굴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게 오랜 수천년전의 움무덤에서 거의 온전한 사람의 유골이 적지 않게 발굴되였다.

이미 발굴된 검은개봉유적에서 주목되는 중요한 특징을 놓고서도 뼈가 보존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의심할바없이 토양의 산도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매장지점의 토양이 산성을 띠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약산성이라고 하더라도 뼈의 무기질을 서서히 용해시키기때문에 뼈조직이 보존되지 못하고 점차 삭아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단군의 유해가 안치되여있는 릉안의 토양은 뼈가 부식되지 않고 보존될수 있는 전형적인 중성토양이였다.

이렇게 단군릉이 석회암지대에 자리잡고있고 또 그 릉의 토양이 중성이였기때문에 단군의 유해가 무려 5,000여년에 이르도록 보존될수 있었던것이다.

이렇게 옛문헌기록에 단군의 묘로 전해지는 이 릉의 유해는 남자이고 평균수명이 상당히 짧았던 당시로서는 아주 드물게 오래 산 장수자였으며 그 시대 우리 나라에서 희귀하다고 할 정도로 키가 크고 체격이 장대한 무사다운 사람이였다. 따라서 단군릉에 안치되여있는 남자의 뼈는 의심할바없이 단군의 유골이며 단군은 우에서 분석한 인류학적특징을 가지고있는 실재한 인물이였던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장우진

조선속담

남의 더운밥이 내 식은 밥만 못하다

남의 물건이 아무리 좋은것이라 해도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으므로 비록 남의것만 못하더라도 자기것이 더 좋게 여겨진다는 뜻.

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어라

힘껏 벌어서 절약하여 쓰라는 뜻으로 일을 성실하게 하고 생활을 깐지고 검박하게 해야 함을 이르는 말.

치산치수는 농사의 대본

가물과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해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것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것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가물끝은 있어도 장마끝은 없다

가물은 아무리 심하게 들어도 농사가 안되는 정도의 피해에 그치지만 장마는 곡식은 물론 집과 가산까지 죄다 물에 씻겨내려가게 하므로 아무것도 건어들일것이 없다는 뜻으로 가물피해보다 장마에 의한 피해가 더 큼을 비겨이르는 말.

소경 막대기질

뚜렷한 목표도 정한것이 없이 승산이 없는 어림짐작으로 요행수를 바라면서 행동하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미꾸라지 룡되였다

변변치 못한 사람이 예상외로 훌륭하게 달라지거나 잘된 경우를 놓고 이르는 말.

장치기놀이

장치기놀이는 우리 나라에서 오랜 옛날부터 청소년들이 즐긴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장치기는 고려때 어느 한 장수가 산성에 아이들을 모여놓고 승부내기를 하기 시작한데서부터 유래한것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로 미루어보아 이 놀이가 군사훈련과 관련되여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 전설은 퍽 후에 전해진 이야기로서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청소년들이 즐겨논 민속놀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장치기는 청소년들이 몸을 단련하고 민첩성을 키울뿐아니라 집단주의정신을 키우는데 의의가 있다.

장치기놀이는 나무채로 공을 치면서 노는 놀이이다.

놀이에 쓰이는 공은 대체로 소나무의 옹이가 있는 부분을 둥글게 깎아서 만든다. 그리고 채는 1메터가량 되는 밤나무와 참나무로 끝이 구부러지게 하여 공을 치기 편리하게 만든다.

인원수는 한편에서 10~13명 정도로 한다. 장치기는 편을 갈라 진행하는데 한 사람이 나서서 선수들의 공채를 모두 모아서 뒤섞어놓고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씩 갈라놓는 방법으로 편을 가른다.

장치기는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것만큼 어디서나 할수 있다.

장치기놀이의 기본방법은 경기장 한가운데에 파놓은 시작점으로부터 서로 공을 빼앗아 각기 자기편 종점선(결승선)까지 몰아가는것이다.

장치기놀이에서 특징적인것은 같은 방법의 경기를 거듭해서 얻은 점수에 의해서 승부를 가르는것이 아니라 경기형식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어느 편이 몇가지를 이겼는가에 따라 승부를 가르는것이다.

경기형식은 보통 10여가지인데 그것도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몇가지 대표적인 형식을 보면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먼저 경기장에 량편의 선수들이 들어와서 자기편 종점선까지 공을 빼앗아 몰고가는데 편리하도록 늘려선다. 다음은 량편의 주장들이 복판에 있는 구뎅이앞에 서서 구뎅이에 공을 집어놓고 공채를 머리우에 높이 올려 ×모양으로 엇대고 선다.

심판원이 공채를 공중에 올리던져 그 공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을 시작신호로 한다. 공채가 떨어지는 순간 량편 주장들은 높이 들었던 공채를 내려 구뎅이에 든 공을 다투어 꺼내여 자기편으로 쳐보낸다. 그러면 량편 선수들은 서로 공을 빼앗아 자기편 종점선까지 몰고가기 위하여 겨루기를 진행한다. 이것이 장치기놀이의 첫 순서로 되는데 공채끝으로 공을 꺼낸다고 하여 《직장》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의 놀이는 첫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선수들과 주장들이 서는데 심판원이 두 주장사이에 공중높이 올리던진 공이 땅에 떨어지기전에 주장들이 공채로 그 공을 자기편으로 쳐넘긴다.

선수들은 공이 땅에 떨어지기전에 또다시 되받아 자기편에 넘겨준다. 그러나 공이 떨어지면 심판은 공이 떨어진 지점에서 처음 시작할 때처럼 놀이를 계속한다. 이렇게 하여 공을 자기편 종점선까지 먼저 가져가는 편이 이기는것으로 되는데 공중의 경기라는 뜻으로 《딴장》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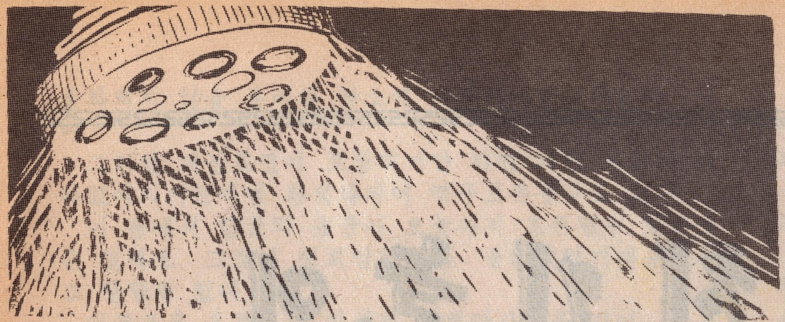
또 다른 형식의 놀이를 보면 시작준비는 첫번째놀이와 다름이 없으나 다만 주장들이 공채를 옆구리에 꿋꿋이 세워끼고있다가 심판원의 신호에 따라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가지고 구뎅이에 있는 공을 꺼내여 자기편에 쳐넘기는 방법으로 하였는데 몸을 한번 돌린 다음에 시작한다는 뜻에서 《돌장》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놀이방법이 있으나 어느것이나 공을 공채로만 다루게 되여있어 발이나 손, 몸에 공이 닿으면 다시 시작하게 되여있다.

장치기놀이의 승부는 여러가지 경기를 모두 진행하고 그중 어느 편이 몇가지를 이겼는가에 따라 결정한다.

본사기자





외과학 박사 류규동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식도외과와 심장외과 분야를 개척한 외과학계의 권위자인 과학원 원사, 교수, 박사 류규동은 지금 복부외과연구쎈터를 책임지고있다.

기자가 찾아갔을 때 박사는 수술장에 있었다.

그의 방에는 평양의학대학 명예학장이며 조선의학과학원 원장이라는 사회적직분보다도 그의 능란한 외과술을 신뢰하며 그의 손길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래서 기자는 발길을 돌려 다년간 그와 함께 일해온 사람들, 그의 지도밑에 외과학계의 유능한 일군들로 성장한 그의 제자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

× × ×

《류규동박사는 성공한 외과의라고 할수 있다.

그의 외과술은 우리 나라 외과학계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류규동박사의 제자이며 15년간 그와 함께 수천여건의 수술을 진행한 평양의학대학 복부외과강좌장 오정균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류규동이 처음으로 수술칼을 잡은것은 1952년 가을이였다.

그때로부터 40여년의 세월은 흘러 그의 나이는 올해 일흔살에 이르고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정력에 넘쳐 수술장에 나서는 로박사의 모습은 사람들을 감탄하게 한다.

해박한 국소해부학지식에 능란하고 민첩한 손동작, 대담하고 정확한 수기, 다른 직업과는 달리 고도의 정신적 및 육체적 부담을 요구하는 수술은 70나이의 로박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6~7시간씩 걸리는 대수술도 그는 어렵지 않게 해내고있다.

외과의에게서 가장 중요한것은 과학성, 대담성, 정확성, 섬세성이라고 볼수 있다.

외과의라면 의례히 갖추어야 할 자질이지만 류규동박사의 수기는 남다른것으로 하여 외과학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있다.

《류규동박사의 수술에서 특징적인것은 대담성과 전개력이다. 특히 각이한 조건하에서의 정황처리에서는 그를 따를만한 사람이 없다.

나는 류규동박사가 집도하는 수술에 자주 참가하고있는데 그때마다 매혹되군할 정도이다.》

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한 대학병원 복부외과연구실의 젊은 연구사 엄철현은 자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 이렇게 말하였다.

외과의에게는 뜻밖의 정황에 부닥치게 되는 때가 많다. 분초를 다투는 인간의 생명을 놓고 외과의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1977년 6월

지중해의 어느 한 섬나라에서 활동하고있던 우리 나라 대표단의 한 성원이 뜻밖의 정황에서 심하게 다쳤다는 급전이 조국으로 날아왔다.

가슴과 허리, 어깨와 다리의 뼈가 아홉군데나 부러지고 소장이 파렬되였으며 페가 손상을 당한데다가 머리에까지 심한 타박상을 입은 환자에게서 남은 생명의 흔적이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가느다란 숨소리뿐이였다.

이미 주재국의 권위있는 의사들이 첫 수술을 하였지만 상태는 더욱 위중해지고 나중에는 심장이 3분간이나 멎었다. 도저히 가망이 없다며 급히 가족을 데려오면 좋겠다는 주재국의사들의 말이였다.

이때 조국에서 특별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류규동이 환자를 맡아나섰다.

수술칼을 드는 류규동을 보며 주재국의 의사들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로부터 두달이 더 지난 8월중순, 완쾌되여 대지를 활보하는 환자를 보며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그때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류규동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무리 어려운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하여도 살릴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외과의는 대담하게 손을 대야 한다. 설사 그 가능성이 단 몇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의사의 한순간의 동요로 하여 환자는 수습할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때엔 후회해도 늦는다.》

환자들의 생명에 대한 이러한 책임성으로 하여 그는 지금까지 식도수술, 승모판협착증수술, 대장암, 위암 수술 등 어렵고 힘든 1만 2천 300여건의 수술을 성과적으로 해냈다.

1990년 5~6월에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지진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단의 단장으로 이란에 가서 1,200여명의 피해자들을 성과적으로 수술하여 완치시켰다.

예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였다. 의료일군들이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환자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치료예방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가르치심은 의사 류규동이 지니고있는 신조이다.

수술은 인간에게 심한 고통과 아픔을 준다.

집도자는 바로 그것을 뜨거운 정성과 친혈육의 정으로 덜어줄것을 요구한다.

평소에 말이 적고 엄하고 무뚝뚝하며 번쩍이는 수술칼처럼 성정이 날카로와보이는 그이지만 환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다정한 친어머니와도 같다.

1991년 5월 평양의학대학병원 복부외과에서는 한 구급환자를 놓고 협의회가 진행되고있었다.

진단은 후복막종양, 게다가 종양의 크기가 의학계에서도 례외적인 것이였다.

보다 난처한것은 환자가 이제 겨우 돐이 되여오는 어린 갓난애라는 것이였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용단을 못내리는데 류규동박사가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단호하게 말하였다.

《집도는 내가 하겠소.》

다섯시간이나 되는 수술을 끝내고나온 박사의 온몸은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며 오정균은 이렇게 말하였다.

《원래 류규동박사의 수기는 섬세하고 정확하지만 집도하는 그의 손을 보며 나는 만지면 꺼질가 불면 날아갈가 저어하는 다심한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다. 그 모습에서 나는 인간생명의 기사로서 우리 의료일군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자세와 립장을 보았다.》

강원도 안변군에 사는 소생된 어린애의 부모들에게서는 그후 계속 편지가 날아왔다.

우리 딸은 무럭무럭 잘 큰다고, 이제는 제법 말도 잘한다고.

그때 편지를 들고 류규동박사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의사라면 누구든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자기 친혈육처럼 생각해야 한다.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아들, 자기 딸처럼…

참된 사랑이 깃든 손길은 병마를 물리친다.》

류규동은 자기가 수술한 환자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그 경과를 관찰하며 책임적으로 돌보고있다. 그래서 그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를 잊지 못해하고있는 것이다.

박사는 권위있는 의학자이며 또한 40여년간 교단을 지켜선 관록있는 교육자이다.

전화의 그 나날, 포연에 절은 군복을 입고 화선에서 돌아온 제대군인대학생들을 상대하여 첫 강의를 하였던 그는 교단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교원은 자기보다 월등한 제자를 키워냈을 때 자기를 스승이라고 자부할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후대교육사업에 정력을 바치고있다. 특히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실험실습과 전공실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의학교육을 강화하여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우리 나라 의학계에서 큰몫을 맡아 활약하고있으며 외과학계의 앞날을 담보하는 믿음직한 후비들로 자라나고있다. 그중에는 10여명의 교수, 박사들과 함께 수십명의 준박사들이 있다.

류규동박사는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출판된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저서인 《외과전서》(1~15권)의 총편집자이며 《외과학각론》, 《야전외과학》을 비롯한 수많은 의학서적들과 교과서, 참고서들을 집필하였다.

× × ×

해질무렵에야 기자는 수술을 마친 류규동박사와 만날수 있었다.

대수술을 한뒤 좀 피로한 기색은 있었지만 박사에게서는 권위있는 로교수의 체취가 그대로 안겨오고 있었다.

환자들을 위해서는 그렇듯 정력적인 그였지만 기자가 찾아온 취지를 듣고서는 좀체로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박사는 오늘 진행한 복부대수술이 성과적으로 잘되였다고 하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그는 제자들이 의학계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외과학계의 전망에 대하여 펼쳐보였다.

그는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로력영웅이다.

젊어서는 축구라면 오금을 못썼고 지금도 장기를 비롯한 오락들을 즐기고있다고 하였다.

경치 좋은 보통강반의 고층아빠트 230여평방메터되는 비교적 넓은 그의 집에서 올해 63살나는, 한때는 만수대예술단에서 저음가수로 활약한바 있는 부인인 공훈배우 신숙희와 자식들이 함께 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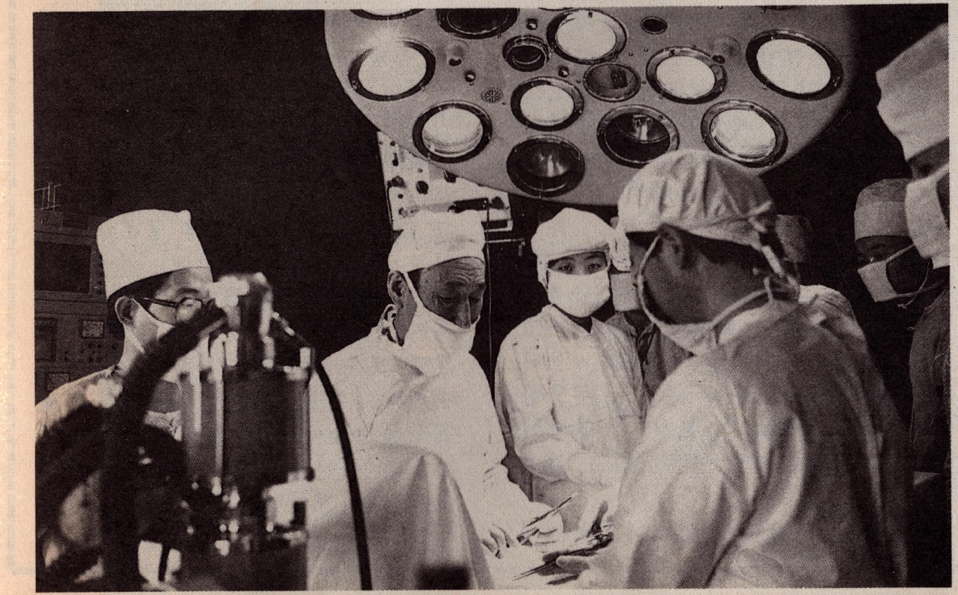
맏아들은 공학분야에서 일하고 나머지 세 자식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학분야에서 일하고있는데 류규동박사는 막내아들 류원용에게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자주 수술에도 참가시키고있다.

방금 수술한 환자의 상태를 보아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난 류규동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현재 의학분야에서는 암을 조기진단, 제거하기 위한 연구사업, 치료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앞으로 나의 목표는 이 난치성질병과의 투쟁에 있다.》

본사기자 김금숙



수술장에 나선 류규동선생(왼쪽으로부터 두번째)

도시소개

사리원시 (1)

사리원시는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도시이며 황해북도의 소재지로서 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되고있다.

사리원은 리조시기에는 황해도 봉산군에 속하여있었으며 1910년부터는 봉산군의 소재지로 되였다. 해방후 1947년 6월에 봉산군에서 갈라져 사리원시로 되였으며 1954년 10월에 황해도가 황해남북도로 갈라지면서 황해북도의 소재지로 되였고 지금 행정구역은 26개의 동과 10여개의 리로 되여있다.

해방전 사리원은 뒤떨어진 상업소비도시로서 동양제사공장, 조선방직주식회사, 제분공장 등 보잘것없는 공장들이 있었다.

당시 사리원은 물이 없고 먼지가 많아 《황진의 도시》로 알려져있었다.

사리원에는 큰 강하천이 없었다.

다만 북쪽의 한철산과 발양산기슭으로부터 시작되는 정방천과 발양산 동남쪽기슭에서 시작하여 재령강으로 흘러드는 상매천이 있었을뿐인데 그나마 7~9월에만 물이 흐르고 그밖에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아 시내에는 먼지만 흩날리였다.

물이 이토록 귀해 이고장사람들은 논판의 물을 마시며 살지 않으면 안되여 여러가지 로질병에 걸려 신음하였으며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죽한그릇은 주어도 물한그릇은 못주었다고 한다.

바로 그러했던 사리원이 오늘은 운하의 도시, 기계공업과 방직공업, 다각적인 농촌경리를 가진 청춘도시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여러차례 사리원시를 찾으시여 도시를 발전된 공업도시, 문화도시로 꾸릴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면서 시중심에 운하를 건설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사리원시 중심에 큰 운하가 생기여 대동강물이 흘러들게 되고 길성포항까지 건설되였다.

오랜 세월 바다와 멀리 떨어져있던 내륙도시는 바다와 련결되게 되였다.

항에는 큰배들을 대고 짐을 싣고부릴수 있는 설비를 갖춘 큰 화물부두와 휴게실, 전망대가 꾸려진 2층짜리 배모양의 역사가 솟아있는 려객부두, 짐배들과 유람선, 려객선들이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게 만들어놓은 5만평방메터나 되는 배터와 갑문, 6정보나 되는 뽀트장이 있다.

오늘 사리원사람들은 길성포항에서 려객선을 타고 운하를 통해 재령, 신천으로 오간다.

사리원시는 도시건설전망계획에 따라 주로 사리원운하를 중심으로 다층주택들과 공공건물들을 즐비하게 일떠세웠다.

시내에는 계응상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과 수십개의 각급 학교들이 있으며 문화회관, 극장, 영화관, 최신의료설비를 갖춘 도인민병원 등이 있다.

또한 경치 아름다운 정방산에는 정방산성과 성불사 등의 고적들이 있으며 경암산에는 경암루가 있다.

명승지 경암산에는 약수터, 놀이터, 동물원, 인공폭포 등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다.

시의 교외에는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농촌문화주택마을들이 아담하게 일떠섰다.

도시의 서쪽과 북쪽, 동쪽 변두리에는 공장들이 배치되여있다.

도시에는 평부선, 황해청년선, 서사리원선 철길과 평양시와 개성시사이의 고속도도로가 통하고 황해남도의 여러 군을 통하는 자동차길이 있다.

사리원시 중심의 북쪽에 상매산이 솟아있다.

이 산에 오르면 현대적인 도시로 면모를 갖춘 사리원시가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이 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본사기자

겨레의 지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확대회의가 지난해 12월 평양에 있는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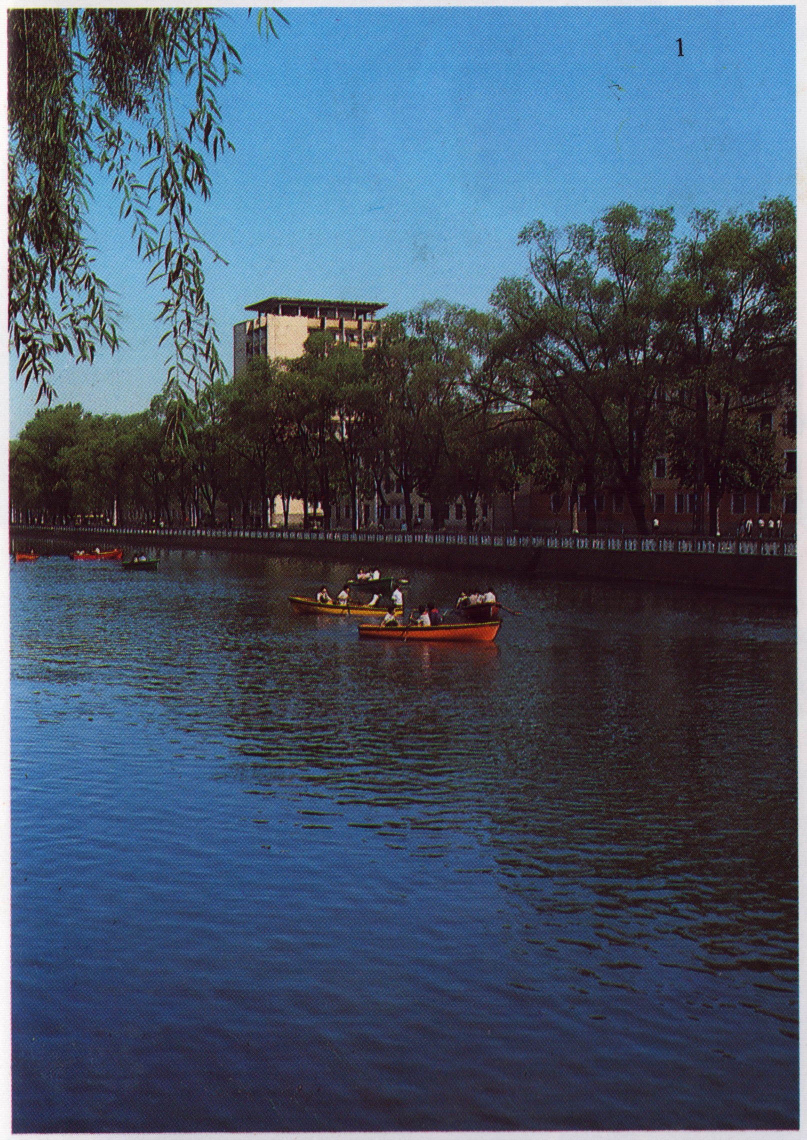
회의에는 김병식부주석을 비롯하여 정무원 부총리와 천도교청우당중앙위원회 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의장들, 의원들이 참가하고 정당, 사회단체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전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여 단군조선의 반만년 력사를 빛내여나갈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보고자는 얼마전에 단군이 실재한 력사적인물이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그가 5,000년전에 벌써 오늘의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것이 해명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반만년의 긴긴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져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가슴아픈 비극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은 력사로 보나 피줄로 보나 오늘과 래일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서나 반드시 통일되여 살아야 할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지난 40년대에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나라의 분렬이 반세기를 가까이하는 오늘까지 지속되고 동족사이에 날이 갈수록 반목과 대결이 더욱 첨예화되여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이 엄중한 시대가 더이상 용납된다면 5,000년의 단일민족사가 우리 시대에 와서 끊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영영 둘로 갈라지는 파국적인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민족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고 옛모습대로 화목하게 살아갈수 있는 길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1 사리원시내에 있는 운하

2 사리원제1고등중학교

3 사리원시의 일부





경암호수



경암루에 올라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사리원시의 근로자들



도인민병원



고려치료과

황주의 공예품



녀성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모자도 만든다



제품을 가공하고있는 작업반원들



공장에서 생산된 여러가지 초물제품들



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토의를 자주 진행한다



차관



옥돌로 만든 그릇들



여러가지 돌공예품들



옥돌공예품 《금붕어》



공장에서 생산된 여러가지 옥돌공예품들

본사기자 정명준

우리 나라에서 가내생산협동조합이라고 하면 흔히 지방원료를 리용하여 가정부인들이 수공업적으로 수수한 일용잡화나 세소상품을 만드는 생산단위라고 인식하고있는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황해북도 황주군 가내생산협동조합에서 만든 제품과 그 조합의 경영활동을 두고 보면 이러한 인식을 초월하게 된다.

황주읍소재지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는 이 조합은 건물도 크지 않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불과 얼마되지 않는다. 그리고 설비라는것도 별로 큰것이 없다.

조합건물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불과 수십명을 헤아리고 1,0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은 읍과 군안의 여러곳에 살고있는 가정부인들이며 작업장 역시 온 군의 가정들에 널려있다.

이 조합은 1977년부터 여러가지 유휴자재를 리용하여 채뽈이나 솔, 장갑 같은 세소상품을 만드는것으로 첫걸음을 뗐는데 오늘은 수백종의 질좋은 초물제품과 돌공예품을 만들어내고있다.

이 조합에서 원료로 리용하고있는것은 지방에서 흔히 채취할수 있는 왕골과 강냉이오사리, 자연석이다.

조합에서 생산하는 주요제품은 우선 왕골과 강냉이오사리로 만든 돗자리와 방석, 가방, 실내화, 모자, 구럭 같은 초물제품을 들수 있다. 모자와 가방 같은것도 그 품종이 대단히 많으며 특히 여기에서 만드는 초물제품은 질이 매우 높은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이들이 만드는 방석이나 돗자리, 실내화는 산뜻하고 고울뿐아니라 가볍고 폭신하고 따뜻하여 인기가 있다. 게다가 제품들은 여러가지 고운 색갈로 무늬도 놓고 글자도 새기는데 그 무늬들이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다. 왕골로 만든 중절모, 체육모, 해가림모들은 아주 곱게 만들어서 천이나 수지로 만든 모자가 무색할 정도이다. 특히 녀자들이 쓰는 해가림모자는 맵시있고 아름다와 처녀들이나 나이든 부인들이 다 좋아한다.

왕골로 엮은 아이들의 해군모자는 글자까지 새겨 깜찍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그 솜씨에 감탄할 지경이다.

이 조합에서는 또한 여러가지 천연석을 가지고 각종 치레거리와 문화용품, 소형조각작품들을 수많이 만들고있다.

특히 이 조합에서 옥돌로 만든 화식도구들중에서 불고기판이 유명하다. 이 불고기판은 뚜껑까지 있는데 잘 연마하여 산뜻하고 윤택이 나는것이 거기에 한번 불고기를 해먹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이 불고기판은 철이나 놋으로 만든 불고기판보다 열을 오래 보존하는 특성이 있어 고기가 타지 않고 고기맛이 유별한것으로 하여 인기가 있다.

돌로 단지, 꽃병 같은것도 맵시있게 만들고있는데 꽃병에 꽃까지 장식으로 조각하여 마치 조각작품처럼 그 품위가 높다. 꽃병도 은근한 색갈의 돌을 잘 연마하여 광택이 나게 한것이 제품의 품위를 한층 돋구어주고있다.

연한 록색의 옥돌로 만든 치레거리들은 그 색갈이 곱고 수정처럼 투명하여 마치 아름다운 보석을 방불케 한다.

거부기, 새, 고양이, 부엉이 등 장식품과 벼루, 펜대꽂개 등 문방구들도 인기가 있다.

조합에는 기술력량도 꾸려져있다.

기술준비실, 소형조각실에서는 공예미술가들이 여러가지 맵시있고 쓸모있는 초물제품과 돌공예품들의 설계도안을 부단히 창안하여 다양한 새 제품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고있다.

기능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대단히 높아 어떤 돌이든지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 잠간사이에 갖가지 기묘한 모양의 제품들이 세부까지 가공되여 나온다. 그것이 연마기에까지 거쳐나오면 반들반들 광택이 나는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완성된다.

이처럼 이 조합에서는 지방에 있는 원료원천과 로력으로 초물제품과 돌공예품을 만들고있지만 생산량이 많고 제품의 질이 높아 1인당 생산액이 대단히 높다.

수도 평양의 백화점들과 기념품상점, 려관들에는 황주의 유명한 초물, 돌공예품들이 매대를 채우고있는데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우리 나라 속담에 《작아도 고추》라는 말이 있는데 이 조합같은것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본사기자 박 호

아시는지요?

건강에 좋은 조선김치

조선김치는 그 생산원료가 다양하고 가공방법이 여러가지이며 지방마다 특색있는 김치를 만들어내여 그 종류가 무려 80여종이나 된다.

김치는 산뜻하고 시원하면서도 생금한 맛과 찡한 맛이 한데 어울려 그 맛이 독특할뿐아니라 건강장수에 좋은 여러가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 오늘에 와서는 세계적인 식료품으로 전환되고있다.

김치에는 사람의 장수에 필수적인 젖산균이 미리리터당 3억~5억개이상 들어있다. 젖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김치를 매일 먹으면 장내에서 유해세균의 증식이 억제되고 정상미생물의 발육이 활발해져서 대장염에 잘 걸리지 않으며 장수한다.

김치에는 젖산균뿐아니라 젖산균과 효모가 발효할 때 생긴 젖산, 레몬산, 호박산, 사과산 등도 많이 들어있기때문에 위안에서 과잉위산의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김치에는 고추, 마늘, 생강, 갓, 파, 분지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향신료, 양념감들이 적당히 들어있어 이것들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며 소화가 잘 되게 한다.

김치에는 특히 비타민류가 많은것이 특징이다. 겨울에 김치를 하루 200~300그람만 먹으면 사람의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80~90%를 공급받는것으로 되며 비타민B_1, 비타민B_2, 비타민E 등을 상당한량 공급받게 된다. 김치에는 또한 비타민B_{12} 등이 들어있어 그 결핍에 의하여 오는 빈혈, 신경질환 등도 미리 막을수 있다. 또한 김치에는 아미노산류가 풍부히 포함되여있고 나트리움, 칼리움, 칼시움, 마그네슘, 린, 철 등의 무기염류와 미량원소가 많이 들어있다.

혈압의 오름을 막는 목도리

몸을 따뜻하게 간수하여야 혈압의 오름을 막을수 있다.

전문가들은 목언저리의 보온이 몸 전체의 보온에 큰 작용을 한다는것을 밝히였다.

사람들은 추울 때 무의식중에 목을 움츠리고 외투깃을 세우며 목도리를 감는데 이것은 몸의 열을 밖으로 나가지

친부모가 되여

일본에서 살다가 귀국한 평양시 서평양무궤도전차사업소 지도원 김천만(41살)과 그의 안해 서혜숙(37살)은 고아들의 친부모가 되여 살뜰히 돌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아들딸을 사랑할줄 알아야 합니다.》

최근년간 그들부부는 부모잃은 5명의 어린이를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우고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두딸까지 합쳐 7명의 자식을 거느린 가정의 부모로 되였다.

그들부부로 말하면 일본땅에서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느껴온 사람들이다. 살길을 찾아 이국땅에 흘러갔던 그들의 부모들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가난하게 살아왔다. 천만의 두 누이는 치료비를 낼수 없어 억울하게 죽었다.

그랬던 천만은 조국에 귀국한후 무료교육의 혜택속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도 마치였다. 그는 이 과정에 조국의 고마움을 한시도 잊을수 없었다.

혜숙이도 아무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배웠다.

그들은 조국의 이 고마움에 보답하고저 성실히 일해왔다. 서평양무궤도전차사업소에서 일하고있는 천만은 최근 몇해사이에만도 50여건의 가치있는 창의고안, 기술혁신안을 내놓아 나라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혜숙이도 처녀시절에는 국가체육선수단에서 륙상선수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였다.

그러나 항상 보답이 따르지 못한것을 죄스럽게 생각해온 그들이였다.

결혼후 얼마 지난뒤였다. 그 무렵 그들은 신문을 통하여 한 공장의 처녀방송원이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였다.

(우리도 고아들을 키울수 없을가?!)

생각은 앞섰지만 어쩐지 그처럼 고아들을 키우지 못할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그들중에서도 안해 서혜숙의 심정은 더하였다. 결혼할 때 남편에게는 어머니없는 두 딸 순희(8살)와 경희(7살)가 있었다. 혜숙은 계모로 들어와 지금껏 이 자매를 자기가 낳은 친딸처럼 키우고있었던것이다.

그러던 1992년 11월 어느날 텔레비죤을 통하여 평양시 형제산구역의 한 녀성이 3명의 부모잃은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였다.

(고아들은 부모의 정을 그리워하고있다. 그들을 데려다 키우는것도 다 나라의 부담을 덜고 그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미림학원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원아들의 훌륭한 생활을 목격한 그들은 한편 걱정이 없지 않았다.

(나라에서 이토록 애지중지 귀하게 키우는데 우리가 그만큼 키워낼수 있을가?)

하지만 그들은 전화의 그날 부모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되새기였고 친부모의 심정이면 그이의 뜻대로 훌륭하게 키울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하여 그들은 1992년 12월초에는 8개월 된 젖먹이, 4살난 처녀애 그리고 15살난 총각애를 데려왔고 지난해 1월에는 또다시 12살, 9살 난 총각애를 더 데려왔다.

그들의 소행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 2월 그들부부에게 감사를 보내주시였으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선물까지 안겨주시였다.

이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던 그날 그들은 너무도 고맙고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동지를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생명까지 기꺼이 바치고 피와 살 지어 뼈와 눈까지 바치는 우리 사회에서 자기들의 소행은 너무나도 평범한것이였기때문이였다. 정녕 평생을 두고도 다 갚을수 없는 믿음과 사랑이였다.

그날 그들부부는 고마운 어머니당에 보답할 자기들의 심정을 담아 아이들의 이름을 큰아이로부터 차례로 남자애는 김충일, 김효일, 김성일로 녀자애들은 김일숙, 김편숙, 김단숙, 김심숙으로 고치였다

아이들의 이름에서 가운데글자를 합쳐보면 《충효성》, 《일편단심》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로 데려온 아이들은 성격이나 취미, 습성이 서로 달랐다. 언제한번 조용한 날이 없었다. 저녁이면 빨래감이 한구들을 덮었다. 어느 한날 혜숙은 아이들의 시중에 편한 때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머니라 부르는 아이들에게서 모성애의 기쁨을 느끼며 더 각근히 키우기 위해 애썼다.

사실 혜숙은 아직 애기를 낳아보지 못한 녀성이다. 그도 다른 녀성들처럼 자식을 보고싶은 생각이 없을수 없었다. 그러나 고아들을 데려오기전에는 계모라는 조건으로 생각이 깊었고 5명의 고아를 데려온후에는 또 그때문에 생각을 더욱 깊이 굴렸다. 애기를 낳으면 데려온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키우지 못할것같이 생각되여 이웃들의 진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었다.

혜숙에게서 이런 친어머니의 정을 느낀 아이들은 한결같이 어머니의 품에 파고들었다.

활달하면서도 인정미 넘치는 그의 가정에는 언제나 화기가 넘쳐 떠들썩했다.

무릇 사람들은 데려다 키운 자식들에게 친부모에 대해 말해주기를 꺼려하지만 혜숙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애당초 자식들에게서 그 어떤 덕을 보려고 키우기 시작한것은 아니였다.

(나라의 은덕을 알고 부모의 뒤를 잇게 하자.)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였다.

하기에 그는 여러곳을 뛰여다니면서 매 아이들의 친부모의 경력을 알아냈다. 16살 난 맏아들 충일이 친어머니의 묘를 찾아내기 위해 그가 기울인 수고를 여기에 다 적을수는 없다.

어느날 그는 충일이를 앞세우고 그의 친어머니 묘소를 찾아갔다.

묘비에 하얀 들국화꽃송이를 놓고서 울음을 참고있는 충일이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묘앞에서 울음을 참는다는것을 안다. 실컷 울어라. 그리고 어머니를 잊지 말아라. 너의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였다. 너도 크거들랑 부모들처럼 나라에 충성 다하여라.》

그러면서 그는 충일이에게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윽하여 충일이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저의 친어머니도 그렇지만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예요. 나도 두 어머니처럼 살겠어요.》

혜숙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부모의 넋을 찾아주었고 자기의 친부모처럼 대를 이어 나라에 충실하도록 일깨워주고있다.

지금 이들부부는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와의 련계밑에 아이들의 교육교양과 건강발육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애들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과외소조에 망라시켰다.

혜숙은 지금 주변의 고마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들을 잘 키우고있다. 고려호텔과 련못관을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 사회급양부문, 봉사부문 일군들은 아이들의 생일상을 차려주고 철따르는 의복들을 안겨주며 부모 된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다. 저녁이면 담당의사들이 문을 두드리고 이웃들이 때없이 찾아와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도와주고있다.

서혜숙가정의 소행은 우리 나라에서 피여난 하나의 작은 꽃에 불과하다. 부모없는 아이들과 혼자 사는 늙은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돌보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행복한 가정의 하루



본사기자 로명준

못하게 하기 위한 자연적인 동작이다. 아무리 추울 때에도 목언저리는 따뜻하다. 이곳을 잘 간수하지 않으면 몸의 열이 많이 빠져나간다.

특히 고혈압에 걸린 사람들은 몸을 보온하는것이 좋다. 실험에 의하면 토끼의 목언저리를 차게 하면 혈압이 많이 올라갔고 50도의 뜨거운 물을 넣은 주머니로 덥혀주면 혈압이 차츰 내려갔다.

목부분은 굵은 동맥과 정맥이 피부표면의 가까운곳을 지나가고있기때문에 차고 더운 영향을 크게 받는다. 때문에 고혈압증에 걸린 사람들은 추운날 밖에 나갈 때에는 목도리를 두르고 목부분을 보호하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도리는 목에 꼭 붙게 감지 말고 훌렁하게 감는것이 좋다.

손과 발도 잘 간수하여야 한다. 손과 발이 차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고혈압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것이 더욱 심하기때문에 뇌졸증의 예방을 위해서도 손과 발을 잘 간수해야 한다.

약효가 큰 미나리

미나리는 여러가지 비타민과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으며 특히 약효성분이 많다.

미나리에는 간염을 치료하는데 좋은 물질인 콜린과 글루타민산, 아스파라긴산, 메티오닌을 비롯한 12가지의 아미노산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미나리는 간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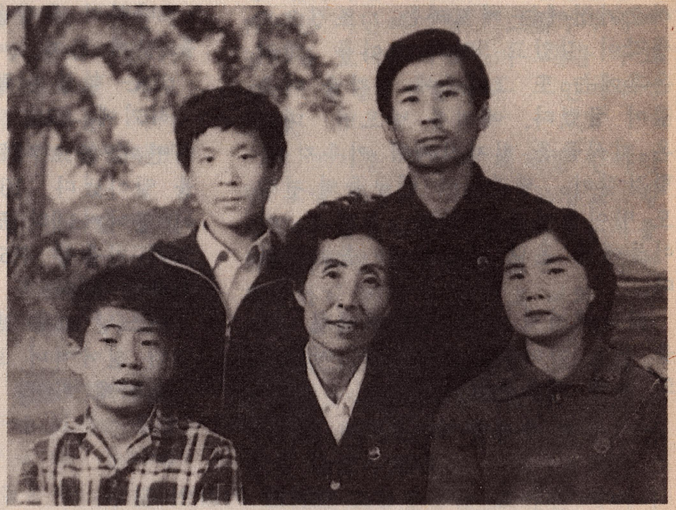
또한 미나리는 독풀이약으로 쓰인다. 고등어나 방어를 먹었을 때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에 미나리를 달여먹거나 생즙을 짜서 먹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좋은 미나리를 일상적으로 먹으면 대장염, 간염을 미리 막거나 치료하는데 좋으며 물고기음식을 가공할 때 넣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식중독을 막을수 있다.

미나리를 음식에 쓸 때에는 보통 줄거리와 잎을 따로 갈라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줄기가 연할 때에는 그대로 써도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91765 다이아몬드바
이스트게이트거리 24428번 백월암 앞

그리운 오빠에게



대양건너 머나먼 이국땅에서 살고있는 오빠, 안녕하세요?

마음씨 곱고 무던한 형님과 조카들모두가 잘 있는지요.

조국에 있는 린제오빠와 저 그리고 집안식구들은 잘 지내고있답니다.

오빠, 지금도 삭주읍에서 오빠와 상봉했던 그날의 그 광경이 눈앞에 삼삼하답니다.

중국의 서주에서 살다가 어린 나이에 오빠와 헤여져 생사를 모르다가 반세기의 세월이 흘러간후에 상봉하였으니 그 만남이 꿈인지 생시인지 그저 믿기 어려웠답니다.

그처럼 바라고 고대하던 상봉이기에 오빠와 만난 그 날밤 우리는 지나간 세월의 추억을 더듬으며 가지가지 이야기를 나누기에 밤을 밝히지 않았나요.

오빠, 오빠와 만났을 때에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저는 지금 다섯자식을 가진 어머니로 아무 근심걱정이 없이 지내고있답니다.

오빠도 아시겠지만 자식 하나 키우는데 드는 품이란, 정말 옛날 같으면 혼자사는 녀자가 아들딸 다섯을 키워서 시집장가를 보내자면 얼마나 힘들고 눈물겨운 설음이 많았겠어요.

그게 가슴에 맺히여 브라질에서 사는 큰언니는 늘 저에 대한 걱정을 해왔답니다.

오빠, 올해초에 저는 둘째아들 현철이의 결혼식을 해주었어요.

둘째며느리는 인물이 곱고 마음씨 좋아 동네에서 다 칭찬을 한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이면 외딸 현옥이를 시집보내게 돼요.

맏이와 둘째의 결혼식을 잘해주고 그애들의 내외가정이 두터워 깨가 쏟아지게 재미나게 사는걸 보면 그 기쁨이 크구요. 또 현옥이의 신랑감도 의젓하고 셋째, 넷째 아들이 대학과 전문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니 내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이런 행복을 누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르기를 혼자사는 녀자의 서러움이 하늘에 닿는다고 했지만 여태 저는 그런 서러움을 모르고 살아온답니다.

저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마음에 그늘이 질세라 이웃들이 도와주고 나라에서는 다섯자식을 돈한푼 받지 않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니 저한테 무슨 부담이 있겠어요.

브라질에서 사는 아저씨와 언니가 금천에 오셨을 때 우리 집 셋째가 축하공연무대에서 나팔을 멋들어지게 부는걸 보고 저애를 저만큼 키우는데 돈을 얼마나 썼는가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그애 음악재간을 가늠해보고 무상으로 키워주었다고 하니 무척 신기해 하며 자기는 딸에게 피아노를 타는 재간을 배워주기 위해 가정교사를 두었는데 많은 돈이 든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동네 이웃들이 머나먼 이국에서 아저씨와 언니가 오시였을 때 제부엌일을 도와주는걸 보고 이국땅에서는 이웃에서 무슨 재난을 당하면 강건너 불보듯 한다고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는 그 마음씨를 두고 무척 부러워했답니다.

저는 이런 고마운 이웃들속에서, 이런 고마운 나라에서 산답니다.

오빠, 올해 가을에 조국방문을 예견한다고 하시던데 오시면 이 누이동생이 살고있는 금천으로 오세요.

평양—개성간 고속도로가 읍거리앞으로 뻗어가고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례성강다리가 놓인 금천은 참으로 살기좋은 고장이랍니다.

밤나무숲에서 알알이 여문 밤알이 뚤렁뚤렁 떨어지는것을 줏는 재미는 또 어떻구요.

오빠, 이 누이동생이 오빠에게 부탁하고싶은것은 조국통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거예요.

그럼 이만 쓰겠습니다.

그리운 오빠와 가정의 행복을 바랍니다.

황해북도 금천군 읍 144반 백옥희 올림



고향소식

합장강기슭을 찾아

얼마전 본사편집부는 평양시 룡성구역 룡궁고등중학교 교원 류봉련으로부터 중국 길림성 도문시에 있는 고모들인 류정숙, 류정복에게 고향소식을 전해주고싶다는 서신을 받았다.

따스한 봄기운이 부풀기 시작한 3월초순 어느날 우리는 류봉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룡성구역에로의 취재길에 올랐다. 3대혁명전시관이 위치한 련못동에서 뻐스를 타고 북쪽으로 얼마쯤 나가면 룡성구역에 이른다.

우리는 구역의 한 일군으로부터 룡성구역에 대한 연혁을 들으면서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평안남도 대동군에 속해있던 이곳이 평양시의 한개 구역으로 개편된것은 1959년 9월부터였다.

해방전에 이곳 주민들은 물이 발라 대대로 조나 피를 비롯한 밭곡식을 심어왔다. 논이라고 해야 합장강상류와 개울가에 뙈기논이 몇개 있었을뿐이였다.

논을 풀어 흰쌀밥을 먹는것은 이곳 농민들의 간절한 소원이였다. 한 가난한 농민이 밭에 합장강물을 끌어오기 위해 머리고개 물길굴을 뚫는데 등유 세독을 등잔불로 다 썼다는 이야기는 당시 농민들의 갈망을 충분히 짐작케 하고있다.

하늘에 대고 기우제를 지내도 비는 오지 않아 해마다 북데기농사로 빈손을 털고앉은 농민들은 하는수 없어 참외, 목화, 삼을 심어서 시장에 팔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해왔다. 일제는 목화나 삼마저 《공출》로 빼앗아갔다. 삼바줄을 얼마나 꼬았으면 오늘날에도 림원동에는 삼바골이라는 지명이 남아있겠는가.

일제의 연유보급창, 폭탄저장고, 각종 병기수리기지들이 생겨나 왜놈들의 등쌀에 더는 살수 없었던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고향산천을 버리고 하나둘 떠나갔는데 그때 해외로 흘러간 동포들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룡성이 몰라보게 달라지게 된것은 해방후 특히는 전후시기부터였다.

농민들은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고 밭이 논으로, 뙈기논이 규격포전으로 정리되였다. 관개수로가 그물처럼 뒤덮였다. 호미질에 등이 휘던 농민들이 기계로 농사짓게 되였다. 피쌀 한톤도 내지 못하던 땅에서 논벼가 정당 10톤이상씩 쏟아져나왔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평양시가 그러하듯이 이곳 룡성에도 재더미만 남았었다.

그러나 전후 룡성구역소재지도 새롭게 일떠섰다. 이곳은 평양시의 식료가공공업 중심지의 하나로, 믿음직한 축산물 및 남새 공급기지로 전변되기 시작하였다. 짧은 기간에 고기가공공장, 담배공장, 닭공장, 배합사료공장과 목재가공공장을 비롯한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공장들이 건설되였다.

우리는 중앙공장들과 함께 지방산업공장들도 돌아보았다.

식료공장에 들렸을 때 한 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공장 제품중에서도 불로초술이 인기가 높습니다.》

구역의 질좋은 백토로 만든 여러가지 도자기제품들도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지방의 원료와 자재로 만든 제품들은 하나같이 깨끗하고 쓸모가 있었다.

평양온실농장에 들어서니 처녀들이 얼굴에 함박꽃같은 웃음을 담고 한창 오이, 도마도를 수확하고있었다.

《우리 구역의 거의 모든 협동농장들은 수도의 남새공급기지로 되였습니다. 사철 수도시민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보장하고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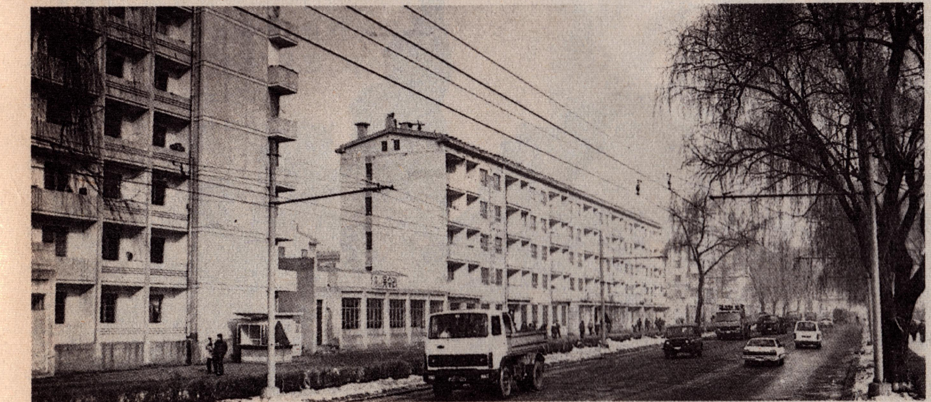
온실에는 오이, 통배추, 쑥갓, 부루 그리고 도마도들이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었다.

구역에는 여러개의 농업과학연구기관들과 시험장들,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 수십개의 병원과 진료소가 있다. 아빠트들이 조화롭게 일떠서고 구획마다 각종 사회급양망, 봉사망들이 편리하게 들어앉아 주민들에게 봉사한다.

합장강기슭에 건설된 소재지의 전경은 볼수록 아담하였다.

지난해 여름 이곳을 찾은 어느 한 나라 해외동포가족일행은 자기 고향땅에서 기억할수 있는 옛 모습은 합장강기슭의 버들방천뿐이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룡성구역의 일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4)



《1211고지 방위자들》

우리 나라 중부 동쪽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전략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1211고지가 있다.

전쟁의 마지막단계에 침략자들은 이 고지를 빼앗으려고 하루에도 평균 4만~5만발의 포탄과 폭탄을 퍼부으면서 발광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용사들은 이 고지를 내놓는다면 조국의 많은 고지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에 고지를 지켜 영웅적으로 싸웠다.

하기에 적들은 자기 병사들의 주검으로 산을 쌓고 피로 강을 이루게 한 1211고지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한다고 하여 《상심령》이라 불렀고 이 고지 골짜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오지 못한다 하여 《함정골》이라 불렀다.

부주제군상 《1211고지 방위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진행된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에서 조국의 한치땅을 피로써 지켜낸 영웅전사들의 불멸의 위훈을 전형화하고있다.

피끓는 가슴으로 불뿜는 적의 화구를 막아 아군의 돌격로를 연 꽃나이전사, 두팔을 부상당한채 턱으로 중기압철을 눌러 적들을 쓸어눕히는 사수, 전투에서 팔다리를 모두 잃었으나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입에 수류탄고리를 물고 적진으로 육박하는 전사, 반땅크수류탄묶음을 안고 적땅크에 뛰여드는 간호원…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가슴가슴에 뜨겁게 되새긴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영웅적으로 싸워 승리한 영웅전사들의 투쟁모습은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의 생활이며 생명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빛내여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한다.

부주제군상 《1211고지 방위자들》은 길이 10.5메터, 너비 4.5메터, 높이 7메터이다.

오늘도 불멸의 위훈을 길이 전하며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영웅전사들의 조각군상은 언제나 우리모두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월미도의 영웅들》

월미도는 우리 나라 서해의 인천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상 일시적후퇴시기 침략자들은 인천에 대병력을 상륙시켜 인천, 서울을 장악함으로써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이때 월미도의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작전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5만대군의 적들을 단 4문의 포로 막아나섬으로써 조국의 섬 월미도를 3일간이나 지켜냈다.

이리하여 월미도의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방침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부주제군상 《월미도의 영웅들》은 월미도방위자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단 한문밖에 남지 않은 포를 놓고 최후의 《발사!》구령을 내리는 지휘관, 마지막포탄을 안고나선 전사, 서리발총창을 꽂으며 육박전으로 나가는 취사병, 희생된 전우를 부여안고 애타게 부르는 무전수, 결사전에 나선 전사들…

해방후 처음으로 자기 조국의 품속에서 사람다운 생활과 참다운 행복을 누려본 이들은 조국이야말로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며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한목숨 바쳐 보답하는것이 응당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희생적으로 싸웠다.

부주제군상 《월미도의 영웅들》은 길이 10.5메터, 너비 4.5메터, 높이 7메터이다.

본사기자 윤홍엽

《군대의 누이》

우리가 개성시 장풍군 읍에서 살고있는 김창화녀성을 만난것은 얼마전 일이였다.

자그마한 키와 날씬한 몸매, 억실한 눈매와 함께 퍼그나 열정적인 인상을 안겨주는 녀성.

처녀시절 한때는 체육무용수로서 꿈도 포부도 컸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은 《군대의 누이》라는 별호와 함께 남다른 자랑과 긍지를 안고사는 녀성이다.

그가 인민군군인들과 인연을 맺게 된것은 15년전부터였다.

이해 여름날 창화는 아버지가 조국해방전쟁시기 중상을 당했을 때 얻은 병이 도지여 몸져 누웠다는 기별을 받고 당과류와 산꿀을 준비해가지고 읍에서 백리길이 되는 고향집으로 급히 가고있었다.

그가 얼마쯤 갔을 때 무거운 장구류들을 진 군인들이 땀을 흘리며 강행군을 하고있었다.

이 무더운 날에 수고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들의 곁을 지났으나 웬일인지 걸음이 더디여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들과 멀리 떨어진 다음 다시 돌아보는순간 그는 죄의식을 느꼈다.

그처럼 힘겹게 행군하는 군대동무들의 곁을 지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이 스쳤다는 자책감이였다.

그는 무작정 앞에서 오는 자동차를 잡아타고 군대동무들을 뒤따라갔다. 마침 그들이 길옆에서 휴식을 하며 땀을 들이고있었다.

창화는 그들에게 달려가 사탕봉지를 터뜨려 한웅큼씩 쥐여주고 시원한 샘물을 떠다가 꿀도 타서 한고뿌씩 나누어주었다.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웬 군인들이 그의 집에 불쑥 나타나더니 《감사대표단》이라고 하면서 그때 꿀물과 사탕을 안겨준 덕분에 구분대가 강행군경기에서 1등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러 왔다는것을 알려주었다.

창화는 가슴이 뭉클했다. 얼마 안되는 사탕과 꿀물을 대접한것이 인민이 군대를 위하여 기울이는 뜨거운 마음으로 군인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였던것이다.

이 사건은 군인들을 위하여 별로 한 일이 없는 창화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더우기 알고보니 그 구분대가 선 초소는 바로 창화의 아버지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소속되여 싸우던 부대였고 어머니가 인민유격대 담가분대장으로 싸우던 지대였다.

그리고 창화의 남편 역시 그 부대 출신이였다.

우연한 일치라고만 볼수 없는 일이였다.

이때로부터 그는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남겨두었다가 집에 들린 군인들에게 대접했고 명절이 되면 크게 살찌운 돼지를 끌고 부대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또한 훈련과 물자운반, 출장관계로 집에 들려가는 군인들에게 덞어진 옷도 빨아주고 의례히 솥에 밥 한그릇씩 더 앉혀 놓았다가 식사대접도 하였는데 그 수는 무려 수천번을 헤아리게 되였다.

이 과정에 부대의 군인들과 창화의 가정은 한집안식구, 친혈육의 관계로 되였다.

창화는 한 전사가 훈련도중에 몹시 다쳐 피를 많이 흘리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달려가 자기의 피를 수혈해주었다.

그가 인민군군인들에게 바친 지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눌수록 끝이 없었다.

매 전사들의 생일을 기억했다가 고향의 부모들 못지 않게 차려주던 이야기, 한 전사는 고기나 떡을 입에 대지 않고 밤밥을 좋아한다는것을 알고 가을철 깊은산을 헤매며 밤을 따오던 이야기…

하기에 그가 자주 찾는 부대의 군인들은 식탁에 색다른 음식이 오르는 날이면 《우리 누이가 왔나?…》하면서 주방칸을 건너다보고서야 음식을 들군하였으며 누이가 부대의 꽃이라고, 누이가 찾아오는 날이 제일 즐겁다고 하였다.

그러는 군인들을 바라볼수록 창화는 무엇인가 더 해주지 못해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가슴을 태웠다.

창화는 오늘 군인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려는 마음에서 한해에 20마리의 돼지와 500여마리의 토끼, 닭, 오리, 게사니를 기를 목표를 세우고 온갖 정열을 다 바쳐 축산에 힘을 기울이고있다.

장풍군에서만도 수많은 《군대의 집》, 《군대의 어머니》들이 생겨났다.

진정 혈연적뉴대를 이루고 날로 뜨거워만지는 군민의 정과 일심단결은 그 누구도 깨뜨릴수 없는 우리의 무적의 힘인것이다.

본사기자 채 옥



군인들과 함께 있는 김창화녀성

통일의 걸림돌 —《안기부》

최근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악명높은《안기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의《전국련합》은 성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안기부〉는 통일로 향한 민중의 발걸음을 제동하는 걸림돌이며 탄압의 검은손이다. 안기부는 5공, 6공 때에도 지탄의 대상이였으며 오늘도 의연히 지탄의 대상이다.》

무엇보다도《안기부》는 남조선에서 정치적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어마어마한 모략사건을 꾸며내고 반공, 반공화국소동으로 북남대결을 고취하며 애국적통일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것을 업으로 삼고있는 반공모략과 탄압의 총본산이다.

정보모략기관으로서 수사권까지 틀어쥐고있는《안기부》는《안기부법》에《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수사》를 자기의 기능으로 밝혀놓고 이 파쑈악법을 휘두르면서《안보》의 구실밑에《정보》를 조작하고《수사》를 통해《사건》을 꾸며내는것을 식은죽먹듯하고있다. 지난시기《민청학련사건》,《조국통일촉진그룹사건》,《자민통사건》등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통일운동이 고조될 때마다《안기부》가 꾸며낸 반공모략사건들을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남조선에서 그 진상이 폭로되여 사회적규탄을 받고있는《평화의 땜》사건도 바로《안기부》의 모략극이였다. 이른바 북의《수공작전》설과 그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쌓은《평화의 땜》이라는것은《88올림픽》을 앞두고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진출에 겁을 먹은 자들이《남침》이 박두한듯이 여론을 오도하여 저들에게 향해진 사람들의 눈길을 딴데로 돌려보려는 목적에서 조작한것이였다.

《안기부》는 이러한 반공모략사건날조행위와 함께 남조선에서 애국적통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는 일이라면 못하는짓이 없다.

남조선에서《안기부》가 감행하는 우편물감시책동이 바로 그 한 실례이다.《안기부법》에《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이란것을 만들어놓고있는《안기부》는 이《규정》의 5조와 6조에 따라 남조선에서 우편물검열을 합법적인 자기의 업무로 하고있다. 남조선잡지《말》이 폭로한데 의하면《안기부》는 체신부안에《우정연구소》라는 기구를 설치해놓고 우편검열전문교육까지 받은 요원 473명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편지를 매일 평균 1,500여통, 1년에 50만~60만통씩 검열하고있다.

그 대상자는 례외없이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남조선의 한《국회의원》은 범민족대회 등 통일관련행사가 준비될 때에는《안기부》의 우편검열대상이 훨씬 늘어난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의 악명높은《안기부》는 력사적으로 통일과 대북관련업무를 다 틀어쥐고 북남대화의 진전을 가로막아오는 장본인이기도 하다.《안기부》가 북남대화를 파탄시키기 위해 막후에서 극적인 모략사건을 날조해내기도 하고 또 남측 대표단과 기자단속에 요원들을 박아넣고 직접적으로 방해책동을 해오고있다는것은 널리 폭로되고있다.

북남대화가 시작되여 그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고 하던 1973년 8월에《김대중랍치사건》을 조작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파탄시킨것이《안기부》였으며 1985년 8월 북남적십자회담 제9차회의때에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집단체조의 일부장면을 걸고들며 관람하던 남측 대표단성원들을 경기장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등 소동을 피워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한것도《안기부》요원이였다.

《안기부》는 북남대화를 파탄시키기 위해서는 당국의 지시를 걷어차는것쯤 식은죽먹기로 안다.

남조선잡지《말》은 1992년 판문점에서 리인모로인송환과 관련한 쌍방 대표접촉이 진행되였을 때《안기부장특별보좌관》이 면회소설치문제를 합의할데 대한《청와대의 훈령을 묵살》하고 대표접촉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고 하였다.

남조선에서 김영삼괴뢰역도가 등장한 이후에도《안기부》는 여전히 통일관련업무를 틀어쥐고 좌지우지하였다.

남조선잡지《사회평론》은《대북정책에서 연출과 대본은 안기부가 맡고 통일원은 배우역할만 하고있을뿐》이라고 하였으며 다른 한 잡지는 남조선에서는《안기부를 음지로, 통일원을 양지로 구분》하는데《대북정책》에 한하여서는《양지란 없고 오직 음지만 있을뿐》이며《그 음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는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다.

잡지《신동아》도 지난해 6월 22일 남조선에서 있은《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북의 특사교환제의와 관련한 토의가 진행되였는데《그때 통일원과 외무부가〈일단 회담형식만이라도 북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자〉고 하자 안기부는〈뭐가 부족해서 북측 주장에 끌려가느냐〉,〈북측 의도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전봉쇄해야 한다〉고 하면서〈사사건건 맞〉서 결국 특사교환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였다》고 폭로하였다.

바로 이러한《안기부》의 반대화적이고 반통일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북남대화의 전망은 밝지 못하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질러진 차단봉은 그대로 놓여있다.

본사기자

[민족음식]

버섯당면볶음

음식감(1그릇분)

마른 버섯: 10g
당면: 20g
고기(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등) 50g
미나리: 20g
홍당무우: 15g
파: 20g
마늘 : 3g
기름: 10g
맛내기: 1g
후추가루: 0.5g
간장: 5g
소금: 3g



만드는 법

① 버섯은 불구어서 두께 0.3cm되게 찢는다. 파는 채치고 마늘은 다지며 소고기와 홍당무우는 길이 5~6cm, 두께 0.2cm되게 썬다. 미나리는 줄기만 데쳐서 5cm 길이로 썬다.

② 단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볶다가 버섯을 두고 볶는다. 여기에 고기국물을 조금 두고 볶다가 홍당무우, 미나리, 불군 당면(길이 10cm정도로 썬것), 채친 파의 순서로 넣는다.

③ 마지막에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다진 마늘, 맛내기, 후추가루를 쳐서 맛을 들인다.

경흥관 김광연



경치 아름다운 보통강기슭에 자리잡은 청류관

〔특 산〕

혜 산 호 프

혜산호프는 우리 나라 량강도의 특산물이다.

혜산지방에서 생산되는 호프라는 뜻에서 혜산호프라고 부른다.

호프는 암수 딴그루식물이다. 그러므로 호프에는 암호프와 수호프가 있다.

호프꽃가루를 생산하기 위해 심는 호프는 암호프이다.

호프는 땅속부분(뿌리부분)과 땅웃부분(줄기부분)으로 갈라서 본다.

땅속부분은 어미그루, 뿌리, 땅속줄기로 되여있다.

어미그루에서는 뿌리와 땅속줄기, 줄기(덩굴)가 자란다.

뿌리는 원뿌리와 곁뿌리, 가는뿌리로 되여있다.

원뿌리는 2~4메터의 깊이로 들어가는데 뿌리겉면이 거칠고 검은밤색이다.

땅속줄기는 어미그루의 눈에서 싹이 돋아나 땅 겉층에서 자라는데 연한 밤색이다.

땅웃부분(줄기부분)은 덩굴과 곁가지, 잎, 꽃송이로 되여있다.

덩굴은 어미그루의 눈에서 싹이 자라 다른 물체를 감으면서 10~12메터까지 길게 뻗어올라간다. 덩굴의 모서리에는 갈구리모양의 뾰족한 가시가 많이 돋아있다. 덩굴의 색은 품종에 따라 다른데 주로 자주빛 혹은 푸른빛이 난다.

잎은 덩굴과 곁가지의 매 마디들에서 한쌍씩 돋아나는데 서로 마주 붙어있다. 잎은 끝이 3~5갈래로 갈라진 손바닥모양인데 변두리에는 톱이가 있으며 잎의 앞면과 뒤면에는 가는털이 있다.

암호프는 덩굴과 곁가지의 끝부분의 마디들에서 꽃송이가 달린다.

꽃송이는 생김새가 솔방울모양과 비슷하다. 한개의 꽃송이에는 40~60개의 꽃이 피는데 한포기에는 3,000~4,000개의 꽃송이가 달린다.

꽃송이의 꽃잎들의 아래부분에는 루풀린이라고 하는 누런 꽃가루가 있다.

호프의 꽃가루는 맥주와 의약품의 원료로 쓰이고 덩굴은 종이원료로, 잎은 집짐승먹이로 쓰인다.

호프(꽃가루)가 맥주와 의약품의 원료로 되는것은 꽃송이에 들어있는 가루의 주요성분들과 관련된다.

마른꽃송이의 가루(루풀린)에는 물기, 단백질, 탄닌, 총수지, 방향유 등 여러가지의 물질들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호프의 꽃가루는 맥주를 맑게 하면서도 향기롭고 시원하며 쌉쌀한 고유한 맛을 내게 하고 거품이 생겨나 오래동안 있게 하는 작용을 한다.

특히 맥주효모만 발효작용을 하게 하면서 젖산균을 비롯한 다른 잡균들이 살아 퍼지지 못하게 하므로 맥주가 인차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혜산호프는 그 품질이 매우 좋아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호프가 여름동안의 평균온도가 16도 내외이며 강수량이 600~800미리메터 정도 되는곳에서 잘 자라므로 량강도 혜산지방에 호프생산기지를 꾸리라고 하시였다.

그후 호프농장과 호프를 많이 심는 협동농장마다에 현대적 건조장과 압착실, 저장고들을 꾸리게 하시여 호프 1차가공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훌륭히 갖추도록 하시였다.

특히 혜산시에 현대적인 호프가공공장과 그라프트지공장을 건설하고 도에서 생산되는 호프열매를 통일적으로 가공포장함으로써 호프의 반제품생산체계가 서도록 해주시였다. 그리하여 혜산호프는 오늘 전국의 맥주생산 수요를 충족시키고있으며 대외시장에도 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금숙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14~16부



영화의 주인공 윤상민



곽정수는 북조선에서 진행되는 통일음악회에 참가하지 말것을 윤상민에게 권유한다

윤상민은 친우의 아들인 유석이 언제나 조선민족의 넋을 지니고 살것을 바라며 그를 호되게 꾸짖는다



남조선 전두환괴뢰들은 윤상민을 돌려세워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한다





놈들의 끄나불인 리숙자는 윤상민과 그의 아들 문철에게 거짓과 기만으로 쐐기를 박으며 교활하게 책동한다



문철에게 부모님들과 헤어지게된 모든 원인은 놈들의 기만적책동에 있다는 진실을 밝히는 남조선의 《문학예술인련합회》 부회장 경미



윤상민은 용서를 빌며 흐느끼는 사랑하는 아들 문철의 육성을 전화로 받는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지만 음악가에게는

조국이 있어야 한다

최근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제14, 15, 16부를 완성하여 내놓았다.

영화는 이미 나온 제5부의 내용과 이어지고있다.

영화는 주인공 윤상민의 애국애족적인 리념이 반영된 음악작품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절찬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윤상민이 세계적인 작곡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자 전두환괴뢰역도는 그를 저들의 정치적리용물로 만들려고 꾀한다.

그리하여 제놈의 《비서관》에게 《친서》를 주어 윤상민에게 보낸다.

전두환이 보낸 《비서관》을 만난 윤상민은 자기를 남조선에 끌어가려는 놈들의 음흉한 기도를 간파하며 남조선에 민주화가 실현되여야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1년후에 결심을 말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전두환괴뢰역도는 《안기부》를 발동하여 지난시기 윤상민이 프랑스에서 고학을 할 때 남조선에서 실종된 아들을 찾아내여 그것을 미끼로 그를 끌어당기려고 한다.

놈들은 윤상민의 아들을 유괴하여 팔아넘긴 이전 경찰특무였던 리숙자를 불러 그로하여금 윤상민의 아들을 찾아내게 한다.

한편 전두환역도는 윤상민의 친지들과 제자들이 남조선에서 《윤상민음악회》와 《윤상민생일기념음악회》를 열려고 하자 그들을 자기들의 모략을 실현하는데 리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때 독일로 온 제자 곽정수는 윤상민에게 《서울올림픽경기대회곡》을 써줄것을 간절히 요구하지만 스승은 그 요구를 거절한다.

전두환괴뢰도당은 윤상민을 어떻게하나 서울로 끌어오려고 리숙자를 독일로 보낸다.

윤상민과 그의 안해 수임을 만난 리숙자는 그들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며 서울에 가서 상봉하라고 꾀인다.

꿈결에도 잊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만날수 없는것으로 하여 안타까이 몸부림치는 윤상민과 수임.

윤상민은 이 모든 마음속고통을 참고 이겨내면서 오직 조국통일성업에 한몸바칠 결심으로 사회주의조국의 품을 찾아 다시 평양을 향해 떠난다.

한편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모대기던 수임은 독일에 온 곽정수에게 남조선으로 돌아가면 아들의 행처를 알아서 알려줄것을 부탁한다.

스승의 마음속고통을 덜어주려고 곽정수는 서울로 돌아가 리숙자를 만난다.

《안기부》의 리숙자는 곽정수에게 윤상민부부가 그토록 안타까이 찾는 아들이 바로 곽정수자신이라는것을 알려주면서 윤상민자신이 명예를 얻기 위해 매판재벌인 운송그룹회장의 양아들로 그를 팔아넘겼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의 말을 듣고 번민에 사로잡힌 곽정수는 아들에 대한 소식을 묻는 수임의 전화를 받고도 자기가 아들이라는 대답을 못해주며 안타까이 몸부림친다.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한 윤상민은 강서고분의 벽화《사신도》며 판문점과 분계연선지대를 돌아보면서 범민족통일음악제에 내놓을 음악작품인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의 기본상을 잡는다.

윤상민은 애국애족의 리념이 반영된 음악작품을 창작하는 한편 범민족통일음악제를 위한 실무자예비회담을 진행한다.

범민족통일음악제를 성사시키려는 윤상민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지자 이에 당황한 남조선괴뢰도당은 《안기부》를 발동하여 모략책동을 더욱 발악적으로 벌린다.

《안기부》놈들은 실무자예비회담을 위하여 떠나는 남측대표인 곽정수를 회유하여 예비회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한다.

그리고 윤상민과 곽정수가 결별되도록 한다.

이 마당에서 비로소 30여년을 애타게 찾아온 아들이 바로 곽정수라는것을 알고 몸부림치는 윤상민과 그의 안해 리수임.

한편 서울에서는 윤상민생일음악제를 요란하게 벌리도록 하므로써 그 기회에 그를 꾀여오려고 한다. 이 음흉한 술책도 파탄되자 놈들은 윤상민을 인간적으로 매장시키려고 그가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아들을 팔아넘겼다는 허위자료를 신문에 공개한다.

《안기부》의 모략을 알게 된 남조선의 《문학예술인련합회》 부회장 경미는 곽정수를 찾아가 가슴아픈 지난날의 일들을 사실대로 알려준다.

뒤늦게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인 윤상민의 리념을 리해한 곽정수는 남조선괴뢰도당을 준렬히 규탄하고 놈들과 단호히 결별하며 범민족통일음악제를 기어이 성사시키는데 한몸바칠 각오를 가진다.

이렇게 되자 괴뢰놈은 《안기부》놈들을 내세워 곽정수가 아버지를 찾아 베를린으로 떠나지 못하게 막아나선다.

한편 놈들은 베를린에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비행장으로 가는 윤상민의 승용차를 기중기차와 충돌시킨다.

그러나 충돌사고에서 구원된 윤상민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민족적분렬주의책동을 준렬히 폭로단죄한다.

영화는 이러한 형상들을 통하여 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결합시킬 때만이 진정한 애국자로 자신의 삶을 참되게 빛내일수 있으며 음악에는 국경이 없지만 음악가에게는 조국이 있어야 자신의 재능도 희망도 활짝 꽃피울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본사기자

명인소개

고려의 명장 최영

최영은 고려말기의 이름난 장군, 대신이였으며 고려왕조에 대한 지조가 굳은 사람이였다. 최영은 1316년에 개경(오늘의 개성)에서 그리 높지 않은 벼슬자리에 있던 최원직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체격이 몹시 좋았으며 힘이 셌다. 이러한 그를 보고 동네사람들은 《고려에 연개소문장군(고구려말기의 명장)과 비길만한 장수가 태여났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영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서 《사나이로 태여났으면 마땅히 나라를 위해 충의를 떨쳐야 하고 금덩어리보기를 돌쪼각같이 여겨야 한다》는 교양을 엄하게 받았다.

최영의 젊은 시절은 여러 전장의 전란속에서 흘러갔다. 소년기를 갓 벗어난 나이때부터 그는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여러 전투에 참가하여 용맹을 떨치였다.

청년시절에 벌써 최영은 고려의 명성높은 군사지휘관의 한사람으로 활동하였다.

1364년 1월 최영은 고려군을 총지휘하여 반역자 최유가 이끄는 외래침략군을 보기 좋게 격파하고 고려군의 위세를 떨치였으며 2월에는 일시 잃었던 땅을 되찾는데 성공하였다.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최영의 명성은 왜구(왜나라 도적이라는 뜻)들과의 싸움에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원래 왜구란 일본의 봉건적사회발전단계에서 령락하고 몰락한 무사계급의 출신들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해적무리들을 말한다. 이 무리들은 벌써 삼국시기부터 가까운 우리 나라 지경에 침범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나라와 중국, 동남아세아의 여러 나라 인민들을 수백년동안이나 괴롭히면서 략탈과 살인을 일삼았다.

고려에 대한 왜구들의 침입이 본격적으로 감행된것은 1350년초부터였다. 그런데 고려인민들의 드센 타격에 겁을 먹고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왜구들은 137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빈번히 대규모적으로 침입해오기 시작하였다.

1375년—1379년 5년 사이에만도 왜적들은 90회이상에 걸쳐 무려 200여개 지점에 쳐들어왔으며 지어는 내륙깊이에까지 달려들어 략탈만행을 감행하였다.

고려정부에서는 왜구들을 물리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때인 1373년 10월에 최영은 6도도순찰사(고려 6도의 군사총사령관)로 임명되였다.

군통수권을 쥐게 된 최영은 왜구의 침입을 결정적으로 분쇄하기 위해서는 수군을 강화해야 한다고 왕에게 건의서를 냈다.

당시 공민왕은 그의 의견에 찬동하였다. 그리하여 최영은 수군 건설과 강화에 힘을 넣기 시작하였다.

왜적을 치는데서는 함선이 제일이라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통절히 느낀 최영은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수백척의 싸움배를 무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고려말기에 강력한 함대건조의 기틀이 마련되고 수군을 강화하게 된것은 왜적들을 반대하는 오랜 투쟁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의 총화인 동시에 고려인민들의 반왜구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의미하는 큰 사변이였다.

이 시기에 고려사람들은 화약무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화포를 함선에 장비하는데 성공하였다.

먼거리에서도 적의 배를 타격하여 불살라버릴수 있는 새로운 무기로 장비됨으로써 고려함대는 왜적들과의 싸움에서 거대한 위력을 과시할수가 있었다.

1376년 7월 왜적들은 금강을 거슬러올라와 부여(옛 백제의 수도)를 습격하고 공주에 달려들었다. 놈들은 략탈과 살인, 방화를 일삼으면서 내륙깊이에 기여들려고 꾀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최영은 왕의 만류를 물리치고 직접 군사들의 선두에 서서 싸움마당에 나섰다.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패전을 모르는 백전로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최영은 대오의 최선두에서 진격하다가 입술에 왜적이 쏜 화살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진격을 멈추지 않고 용감하게 적들과 격전을 벌렸다.

이에 고무된 고려병사들은 질풍처럼 적진으로 돌격하여 대부분의 적들을 섬멸하거나 포로하였다.

1378년 봄과 여름 최영이 지휘하는 고려군은 개풍방향으로 침입하여 수도 개경을 엿보는 왜적들을 한놈도 살려두지 않고 전멸시켰으며 청주, 아산 일대에 침입한 적들도 보기 좋게 분쇄하였다.

1380년대는 왜적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수십년동안 반왜구투쟁에서 고려인민들이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둔 시기였다.

특히 고려의 수군이 왜적들을 격멸한 진포바다싸움은 중세기 우리 나라 해전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큰 싸움의 하나였다.

1380년 여름 왜적들은 500여척의 함선을 끌고와 금강하구인 진포에 달려들어 여러 고을을 싸다니면서 략탈행위를 감행하였다. 100여척의 고려함대는 적들을 격멸하기 위해 출동하였다.

왜적들은 고려수군의 함선이 자기들의것보다 적은것을 보고 일제히 배에 올라 싸울태세를 취했다.

고려함선에 위력한 화약무기가 장비된것을 알리 없었던 적들은 배들을 여러척씩 선단으로 묶어가지고 달려들었다.

고려함선들은 멋모르고 달려드는 적선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순식간에 적함선들은 깨여져나가고 불이 달렸다.

짙은 연기와 거센 불길이 바다를 뒤덮은가운데 선단으로 무어진 적선들은 어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가라앉고말았으며 왜적들은 모조리 불에 타죽거나 물에 빠져죽었다.

이 전투에서 적함선들은 한척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침몰되였다.

진포바다싸움은 최영과 애국적인 고려군민에 의해 재건된 고려수군이 처음으로 바다에서 력사적인 대승리를 거둔 전투로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이 전투는 지금까지 배전을 서로 맞대고 싸우던 방법대신 먼거리에서 적함선을 까부시고 불사르는 새로운 전법을 적용한것으로서 왜적들의 넋을 잃게 만든 싸움이였다.

그후 고려수군은 왜구들의 본거지인 쯔시마를 공격하여 적들의 소굴을 짓부셔버렸으며 다시는 해적행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였다.

고려함대의 쯔시마공격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 대한 왜구들의 침입행위는 기본적으로 종식되였다.

1388년 최영은 당시 고려에서 국왕아래의 정부최고관직이였던 문하시중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그해 여름 압록강쪽에 가있던 리성계일파가 정권쟁탈을 위한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수도 개경으로 진격해왔기때문이다.

왕과 함께 서경(오늘의 평양)에 가있던 최영은 이 반란소식을 듣고 급히 개경으로 달려가 방어군을 조직하고 사태를 수습해보려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력량상 상대가 되지 않았던것이다.

리성계가 이끈 수만명의 반란군은 큰 저항을 받음이 없이 수도 개경을 점령하고 왕을 쫓아냈다.

최영은 리성계일파에 의해 체포되였다.

리성계일파는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정치적적수인 최영을 정배살이 보냈으며 얼마후 정배지에서 그를 죽이였다.

사형장에 나가서도 최영은 낯빛한점 흐리지 않고 떳떳하게 죽었다. 리성계일파는 권력쟁탈을 위한 저들의 더럽고 음흉한 정체를 숨기기 위해 최영을 《반역자》로 몰아 죽이였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최영이 죽던 날 개경사람들은 장보는것을 그만두었으며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두 슬퍼하였다.



최영은 성격이 강직하고 의협심이 강하여 바른 말을 거침없이 하였으며 권세를 휘두르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자들을 증오하고 배격하였다. 그래서 리성계일파를 비롯한 썩어빠진 량반관료배들은 최영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무서워하였던것이다.

최영은 일생동안 금덩어리보기를 돌쪼각같이 하라고 한 아버지의 훈시를 명심하였다.

일찍부터 벼슬길에 올라 일생동안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 정사를 돌보고 군대를 통솔하였으나 생활은 언제나 검소하였으며 사치하지 않았다.

다른 반동관료배들이 토지를 가로채고 재물을 긁어모을 때에도 그는 사리사욕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

그에게는 그가 경영하는 단 하나의 농장도, 노비도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청렴결백성과 나라를 위해 세운 많은 공로로 하여 최영은 인민들과 군인들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최영은 오래동안 군대의 책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군대안에서 봉건적인 강한 규률을 세우고 상벌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이것은 그가 외적과의 싸움에서 패전을 모르게 한 비결의 하나이기도 했다.

복잡다단한 전란의 나날속에서도 최영은 여가가 생기면 시를 지어 읊는것을 즐겨하였다 한다.

그가 즐겨 읊은 시가운데서 조국방위를 위해 《충의》를 떨치려는 자신의 사나이다운 결패와 애국적감정을 격조높이 노래한 다음의 시가 특히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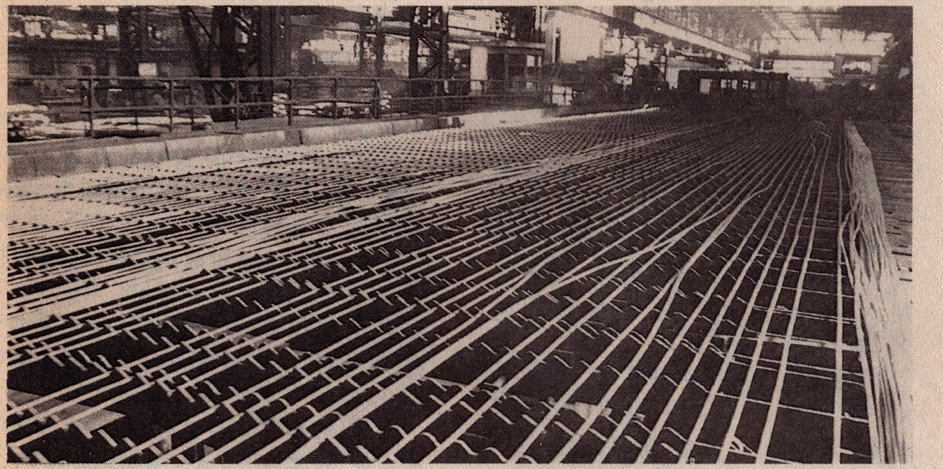
준마를 살찌게 먹여 시내물에
　씻겨 타고
보검을 벼려서 어깨에 둘러메고
장부의 위국충절을 세워볼가
　하노라

최영은 고려왕조의 종말과 함께 생을 마친, 고려말기의 보기 드문 장군이였으며 애국적인 관료였다.

본사기자 리영호

기행 — 동해기슭을 따라

성진만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의 철강재생산

동해의 절승 칠보산을 떠나 동해기슭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유진단이 뻗어서 이루어놓은 성진만에 닿게 된다.

잔파도가 밀려와 기슭을치는 유진단끝에 서서 성진만안에 눈길을 주니 참으로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전경이 안겨왔다.

우리 나라 흑색금속공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웅장한 자태가 펼쳐지는가 하면 크고 작은 고기배들과 가공모선, 운반선들이 숲을 이루고있는 김책수산사업소며 바다가를 따라 즐비하게 일떠선 김책시의 일각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봄빛이 완연히 짙어가는 해안거리를 지나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 이른 우리는 이 제강소의 단조직장에서 기술고문으로 일하고있는 최기준아바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다.

김책시는 해방전까지 뒤떨어진 농업생산지역으로 조, 수수, 피와 같은 잡곡을 주로 심었으며 그것마저 가물과 큰물 피해를 받아 그 소출이 얼마 되지 않았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대륙침략을 위한 군수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강소를 차려놓고 반제품을 생산하였다.

최아바이는 오늘의 김책시경제구성은 매우 다양하다고 하면서 시에는 현대적인 흑색금속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등 중공업과 경공업, 수산업 그리고 농촌경리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최아바이의 안내를 받으며 이 제강소의 용해, 압연, 단조 등 여러 직장을 돌아보았다.

가열로에서 시뻘겋게 익은 강괴가 유압프레스에 물리여 순식간에 엿가락처럼 휘여지며 소재로 다져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오래동안 눈길을 뗄수 없었다.

제강소구내에 있는 공원에서 우리에게 최아바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공원이 꾸려진곳에 어제날 원철로가 자리잡고있었다. 일제놈들은 철생산에 혈안이 되여 아무런 안전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로에 로동자들을 내몰아 숱한 생명을 잃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이 제강소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철생산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하시며 로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철직장을 당장 폭파하여 하늘로 날려버리라고 하시였다.

1947년 9월 제강소를 찾으신 주석께서는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강철을 더많이 생산하며 여러가지 강재의 품종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일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제강소는 질이 높은 여러가지 품종과 규격을 가진 압연강재며 단조품을 비롯한 2차금속제품을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자립적인 대규모강철생산기지로 개건확장되였다.



김책수산사업소



원한서린 원철로자리에 로동자들의 문화휴식터가 꾸려졌다

모든 생산기술공정들이 자동화, 원격화되고있는 흥겨운 일터에서 로동의 보람을 느끼는 강철로동자들과 작별인사를 나눈 우리는 먼바다어업기지로 꾸려진 김책수산사업소로 향하였다.

중년이 가까와오는 이 사업소의 기사장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김책수산사업소는 대형가공모선들과 운반선, 대형랭동공장과 현대적인 가공공장을 가진 종합적인 대규모의 수산기지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먼바다와 가까운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공모선에서 랭동, 절임, 물고기가루로 가공하는 한편 운반선으로 물고기를 실어다가 가공공장에서 통졸임과 젓갈류 등의 완제품으로 만든다고 한다.

마침 부두에 정박한 운반선에서 얼군물고기를 부리우는 작업이 한창이였다.

우리옆으로 얼군물고기를 실은 지게차들이 분주히 오가는데 머리에 빨간수건을 쓴 운전공처녀들의 얼굴에 수산기지에서 일하는 기쁨이 함뿍 어리여있었다.

김책시는 해변도시의 특성에 맞게 규모있고 아름답게 건설되였다.

김책—쌍포사이의 바다가를 따라 현대적인 건축미를 가진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들쑹날쑹 키돋움하며 들어앉았다.

바다가풍치에 어울리게 해안거리, 역전거리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편의봉사 및 후생시설 건물들이 조화롭게 자리잡고있었다.

신평해안에는 여러가지 문화오락시설을 갖춘 공원이 꾸려졌고 드넓은 백사장에는 해수욕장도 건설되였다.

봄빛이 무르녹은 잔솔밭속에 쌍쌍이 거니는 청춘들, 오락장에서 터지는 맑은 웃음소리는 해안공원의 풍치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본사기자 조광열

독 자 란

더욱 굳게 다지는 마음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수령님의 높은뜻 꽃피워나가시는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조국은 내외분렬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지난해 저는 조국에서 발행하는 잡지《금수강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들을 통하여 조국의 현실을 더욱 잘 알게 되였으며 조국의 륭성발전에서 민족적자부심을 느끼였으며 우리 조국의 앞날이 더욱 휘황찬란할것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였습니다.

올해에도 저는 수령님의 신년사를 참답게 학습하여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뼈와 살로 만들며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심장에 새기고 해외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은 힘이나마 바쳐가겠습니다.

조국인민들의 투쟁에 발걸음을 맞추어 해외에서도 범민련해외본부와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많은 동포들을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투쟁에로 불러일으켜 투쟁대오를 확대하여나아가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매하구시 제11중학교
김점칠

고국을 리해할수 있는 교과서

인제는 잡지《금수강산》이 저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것으로 되였습니다.

《금수강산》은 저에게 있어서 고국을 리해할수 있는 충실한 교과서입니다.

특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회고록《세기와 더불어》등을 읽은것이 제일 인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충실한 전사 리인모로인이 공화국의 품에 안긴 사실도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잡지《금수강산》을 통해 알게 된 고국의 현실과 이야기들을 함께 일하는 주위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잊지 않고 열정적으로 설명해주고있으며 그것을 통해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군합니다.

저는 언제나《금수강산》의 애독자로서 좋은 소식을 많이 실어보내주기 바랍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의학원
최송암

—유구한 민족사의 갈피를 더듬다—

부여왕의 후회



고구려 7대 왕인 대무신왕(무술이 귀신같다고 하여 붙여진 왕호)이 왕위에 오른지 3년째 되는 초겨울 어느날.

북쪽의 부여국에서 사신이 고구려로 왔다.

고구려왕궁에 들어선 사신은 대무신왕앞에 자기네 나라에서 가져온 《선물》을 내놓았다. 그 《선물》이란것은 기상천외하게도 대가리는 하나이고 몸뚱아리가 둘인 붉은 빛갈의 까마귀였다.

이 괴상하게 생긴 까마귀는 어떻게 되여 부여땅에서 고구려로 오게 되였는가.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어느날 부여땅의 한 신하가 그 까마귀를 얻어서 왕에게 갖다 바쳤다. 부여왕 대소는 까마귀를 보자 눈이 휘둥그래지며 금시 낯빛이 죽었다.

《이게 대체 무슨 불길한 조짐인고? …》

대소는 보기에도 끔찍한 까마귀를 놓고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자 그 신하가 대답했다.

《아니올시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분명 우리 부여가 대길할 징조올시다.》

《이놈아! 이런 괴상망칙한 날짐승이 나타났는데 네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대소는 금시라도 신하의 목을 벨것처럼 으르렁거렸다.

신하는 까마귀의 모양을 놓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까마귀란놈은 원래 검은것인데 이렇게 빛이 변하여 붉게 된것은 앞으로 시국이 변한다는것을 예언해주는것이옵니다. 그리고 몸뚱아리가 둘이고 머리가 하나로 된것은 앞으로 대왕께서 부여와 고구려를 병합하여 하나의 부여국을 다스리시게 되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신하의 분석은 극히 단순하고 유치하였다. 그러나 대소는 무릎을 탁 치며 탄복하였다.

《과시 네 말이 옳다! 내가 항시 바라고 꿈꾸던바가 바로 그것이였노라!》

대소는 까마귀를 다시 눈여겨 살펴보며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다. 일찍부터 대소는 남쪽의 고구려가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여 강력한 대국으로 되고 그 위세를 크게 떨치게 되자 이를 몹시 못마땅해 하면서 위구를 느끼고있었던것이다.

그는 고구려가 더 강대해지기전에 병합해버릴 야심을 품고 기회만 노리고있었다. 고구려에서도 대소의 이러한 속심을 알아차리고 부여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있었다.

대소는 그 까마귀를 조롱에 넣어서 고구려왕에게 《선물》로 보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아니, … 이 흉칙한 물건을 고구려왕에게 《선물》로 보내다니?…)

신하들은 영문을 몰라 한동안 벙벙해졌다. 그러자 대소는 그들을 둘러보며 호기있게 말하였다.

《생각들이 왜 그리 짧은고? 우리 나라에 이처럼 길할 징조가 나타난것을 무엇때문에 우리만 알고있겠느냐? 이 붉은까마귀가 예언해주는바를 마땅히 고구려도 알고있어야 그들도 우리 부여에 병합되는것이 피할수 없는 운명이라는걸 느끼고 순순히 굽어들게 아니냐?》

《천만지당하신 현명한 처사인줄로 아뢰오.》

부여국의 신하들은 그제야 대소왕의 의도를 깨닫게 되였다. 그래서 부여국에서는 까마귀를 좋은 조롱에 넣어서 사신과 함께 고구려로 보내왔던것이다.

그런데 고구려의 대무신왕은 부여국사신이 가지고온 《선물》을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보더니 웬일인지 몹시 흡족해하며 머리를 끄덕이는것이였다.

《귀한 〈선물〉을 보내주어서 고맙소. 헌데 이런 희귀한 물건을 우리 고구려에 보내온 까닭이 있을텐데 … 혹시 부여가 고구려에 스스로 병합되려는 뜻이 아니요?》

예상외로 대무신왕이 흡족해 하는것을 보고 어리둥절해 있던 부여국사신은 왕청같은 이 물음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올시다. 우리 임금마마께옵서는 이 붉은까마귀에 깃든 의미를 고구려에 전달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그게 뭔데?》

부여의 사신은 대무신왕의 범같은 기상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넌지시 말을 꺼냈다.

《까마귀란놈은 원래 검은 물건이 아니옵니까. 그런데 이렇듯 붉은 색갈로 변하였으니 심상치 않은 일이옵니다. 게다가 머리는 하나이고 몸뚱이는 둘일진대 이것도 역시 뭔가 깊은뜻이 담겨져있는줄로 짐작되나이다.》

대무신왕은 그말이 수긍되는듯 다시 머리를 끄덕이였다.

《부여에서는 까마귀의 검은색이 붉게 된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는고?》

대무신왕의 첫 물음에 부여의 사신은 신통한 대답을 찾지 못하며 한동안 쭈밋거렸다.

《모르는구만, 그렇다면 머리가 하나이고 몸뚱아리가 둘인것은 어떻게 보는고?》

두번째 물음에는 부여의 사신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우리 임금마마께옵서는 이것이 장차 고구려, 부여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으로 보고있나이다. 말하자면 고구려가 병합되여 이땅우에 하나의 부여국이 이루어질 조짐으로 여기나이다.》

《하하하! 천만에!》

대무신왕은 갑자기 너털웃음을 웃어댔다. 그는 부여국사신을 내려다보며 조롱하듯 말을 이었다.

《내가 설명해주겠노라. 원래 자고로 검은것은 북쪽, 말하자면 어두운것을 의미하는 빛이고 붉은것은 남쪽, 말하자면 밝은것을 가리키는 빛이라, 그런데 까마귀의 빛갈이 붉게 되였은즉 이것은 북방의 빛이 남방의 빛으로 변하리라는것으로서 조만간에 북쪽이 남방의 모양으로 된다는거요. 즉 부여가 우리 고구려에 병합된다는 뜻이 아니겠소.》

《예?!》

부여국사신의 낯빛은 대번에 흙빛이 되고말았다. 그는 앉은자리에서 기가 죽어 안절부절 못했다.

《예로부터 붉은까마귀는 상서로운것으로 여겨오는 터인데 부여에서 그것을 얻었으나 우매하다 보니 간수하지 못하고 우리 고구려로 스스로 가져왔은즉 우리로서는 경사라고 아니할수가 없소그려. 허허… 아무튼 우리 나라는 붉은까마귀가 나타난것을 심히 좋은 징조로 여길터이요.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하는가 하는것은 앞으로 두고보아야 할 일이니 돌아가오.》

대무신왕은 사신에게 부여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통 써주어 돌려보냈다.

사신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있던 부여왕 대소는 그가 나타나자 《그래, 고구려왕이 대체 뭐라고 하더냐?》 하고 다우쳐 물었다.

사신은 쓴 입을 다시며 대답대신 고구려왕이 보낸 편지를 대소에게 주었다. 편지에는 대무신왕이 부여국사신에게 설명해준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있었고 마감에는 《그런 희귀한 물건을 우리 고구려에 넘겨보내준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여있었다.

부여왕은 대번에 낯색이 변하면서 노발대발하여 소리쳤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엉?》

신하들도 그 편지를 읽고 어이없어 왕의 눈치만 살폈다.



《이건 고구려가 도리여 우리를 병합시켜버리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줄로 짐작되나이다. 상서로운 까마귀를 자기네가 가졌으니 앞으로 좋은 일은 고구려에 있을것이라는 대무신왕의 예언이옵니다.》

사신의 말에 대소는 부아가 치밀어 룡상앞을 한참동안 오락가락하며 진정하지 못했다.

《그래, 그 까마귀를 도로 가지고 왔느냐?》

《안가지고 왔소이다.》

사신이 속이 한줌만하여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죽일놈같으니! 그 귀한 물건을 그냥 둬두고 오다니. … 당장 가서 붉은까마귀를 찾아오지 못할가!》

부여왕은 발을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임금님께선 〈선물〉로 보내라고만 하셨지 보이고 가져오라는 말씀은 안하시지 않았소이까.》

《뭐라구? 아이쿠! 내가 큰 실책을 범했구나!》

부여왕은 룡상에 털썩 주저앉으며 맥없이 중얼거렸다. 후회막급했으나 그것은 이미 때가 늦은것이였다.

고구려를 병합하려고 꿈꾸어오던 부여왕 대소는 오히려 병합당할 근심으로 발편잠을 잘수 없게 되였다.

아닐세라 그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난후 부여국은 고구려의 징벌을 받고 망하였으며 대소는 어느 한 전투에서 고구려장수 괴유의 칼에 맞아 목이 떨어졌다.

부여가 고구려에 병합된것은 결코 붉은까마귀가 신비로워서가 아니라 국토와 겨레통합의 큰뜻을 안은 고구려사람들이 자만하지 않고 부단히 힘을 키운데 그 비결이 있었다.

력사학박사 전준현

조선출판물교류협회소식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 중국에서 진행

지난해 10월초부터 11월초까지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중국 길림성 연길과 룡정, 훈춘에서 진행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문화국과 자치주도서관의 주최로 진행된 전람회에는 조선출판물교류협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전람회는 연길시도서관과 룡정시도서관, 훈춘시도서관들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전시장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4권)를 비롯하여 480여종의 도서 6,000여부와 《오늘의 조선》이라는 표제하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업적을 보여주며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그 생활력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였으며 수예품 《호랑이》, 《선녀》를 비롯한 140여종에 1,000여점의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살고있는 한 동포는 전시장을 돌아보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인자하신 모습만 보아도 해외에 있는 우리 조선사람들은 힘이 솟는다.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현시대의 유일한 혁명의 원로이시며 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이곳에서 투쟁하시였기때문에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수령님의 전설같은 투쟁이야기를 전하며 언제나 수령님을 마음속 깊이 흠모하며 우러러 받들고있다.

회고록에 나오는 유서깊은 왕청, 소사하, 푸르허 등이 다 이곳에 있다. 우리는 수령님의 회고록을 뜨거운 감동속에 애독하고있다.》

연변일보 10월 9일부는 1면에 《조선도서, 공예미술품, 사진 전시회》라는 제목을 달고 도서전시장의 일부를 보여주는 사진을 받쳐 개막행사 전과정을 보도하였으며 연변텔레비죤과 룡정시텔레비죤, 연변소리방송과 룡정시소리방송에서도 전람회 개막소식들을 보도하였다.

전람회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민족의 긍지가 차넘치고있는 가운데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참관자들은 조국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서와 고유한 민족문화가 개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면서 이번과 같은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시회를 자주 조직하여줄것을 요청하였다.

조선출판물교류협회주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영광거리

전화번호：37306
텔렉스번호：37018 EPB KP
확스：850－2－814632

세계일화집 (과학자편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에서 세계일화집(과학자편 2)을 출판하였다.

세계일화집(과학자편 1)에 이어 이번에 출판한 이 책에는 1800년이후에 태여나서 활동한 과학자 42명의 일화 150여건이 수록되여있다.

일화들에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과학에 바친 과학자들의 불타는 탐구심과 완강한 의지력, 과학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지어 목숨까지 내대고 투쟁한 굳센 신념에 대해 실지 있은 사실과 사건을 통해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일화들에서는 복잡한 속에서도 기본실마리를 잡아쥐고 자연의 비밀을 파헤쳐나가는 연구방법론과 과학자들이 지녀야 할 깨끗한 량심과 도리에 대해서도 사실과 결부하여 취급하였다.

독자들의 리해를 돕기 위하여 일화앞에 과학자의 간단한 경력과 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업적을 주었으며 뒤에는 그 과학자의 명언들을 소개하였다.

이 책의 첫 페지에는 우리 나라의 지리, 지도학자인 김정호가 소개되여있다.

《풍랑을 헤치고》

고화 《풍랑을 헤치고》는 18~19세기사이에 활동한 화가인 조정규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조정규는 당시 이름있는 화가들이였던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긍재 김득신과 함께 현실적인 인물풍속도를 그린 화가이며 특히는 게와 물고기들을 잘 그려 당대 화단에서 특색을 나타냈다.

그의 자는 성서, 호는 림전이였으며 벼슬은 첨사를 지냈다.

《풍랑을 헤치고》는 파도와 싸우는 어부들의 모습을 잘 형상한 작품이다.

화면에는 중심을 잃은 배우에서 5명의 어부들이 뜻하지 않게 조우한 풍랑과 필사적으로 싸우고있는 모습이 그려져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으며 세찬 물결은 배를 삼킬듯이 사납게 울부짖고있다.

화가는 위급한 정황을 실감있게 묘사하기 위하여 화면의 구도를 부감으로 처리함으로써 풍랑속에서 뒤흔들리는 배의 모습을 그대로 감득하게 하였다. 특히 파도속에 잠긴 배의 한쪽 부분과 세찬 바람에 휘여진 돛의 형상은 풍랑속에서 모대기는 어부들의 다급한 움직임과 어울려 고도의 긴박감을 자아내고있다.

그림에서는 거칠면서도 빠른 속도의 굵고 가는 선으로 파도를 묘사하였으며 피움법으로 먹구름과 물을 군청색으로 처리하면서 그것을 흰 여백과 잘 조화시켜 화면에 떠도는 스산한 분위기를 실감있게 묘사하고있다.

그리고 위기를 겪고있는 배는 먹색으로 처리하여 조형적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였으며 웃옷을 벗어던지고 풍랑과 싸우는 어부들의 모습을 통하여 작품의 내용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켜주고있다.

화면의 웃부분에는 《해저문 강에서 풍랑이 일어나니 어부가 급히 배머리를 돌린다》는 시가 씌여져있다.

림전 조정규는 리조말기에 산수인물화와 물고기들을 잘 그려 화단을 빛나게 하였던 소림 조석진의 할아버지로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모두 우리 나라 화단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풍랑을 헤치고》와 《발갈이》 그밖에도 《물고기와 게》, 《백합》, 《도미》, 《물새》 등 수많은 작품들이 전해오고있다.

본사기자

